

孫一奎의 火熱病機學說에 대한 考察

慶熙大學校 大學院 基礎韓醫科學科

金溶珠 · 白裕相 · 丁彰炫*

A Study on Sun Yi-Kui(孫一奎)'s “Fire·heat-disease-mechanism(火熱病機)” Theory

Dept. of Oriental Medical Science, Graduate School of
Kyunghee University

Kim, Yong-Joo · Baik, You-Sang · Jeong, Chang-Hyun

Many of newly emerging diseases such as hypertension, stroke, diabetes, obesity, and atopic dermatitis are categorized into “Fire·heat-disease(火熱病)” according to oriental medicine. It is because factors such as stress, overeating, and high fat diet are major causes of heat in the human body. Sun Yi-Kui(孫一奎), a well-known oriental medical doctor during Ming Dynasty's “Jia Jing Wan Li Nian Jian”(嘉靖萬歷年間 : A.D 1522~1619), established new theories on “Fire·heat-disease-mechanism(火熱病機)”.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Dr. Sun's “Fire·heat-disease-mechanism(火熱病機)”theory. For this purpose, I thoroughly examined the concepts of “Dong-Qi(動氣)”, “Ming-Men(命門)”, king fire(君火) and minister fire(相火) as well as pathological theory on “Fire·heat(火熱)”. In addition, I compared Sun's theory with those of Li Dong-yuan and Zhu dan-Xi.

Key Words : Sun Yi-Kui(孫一奎), Fire·heat-disease-mechanism(火熱病機), Chi Shui Xuan Zhu(赤水玄珠), Yi Zhi Xu Yu(醫旨緒餘)

I. 緒論

현대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고혈압, 뇌졸중, 당뇨, 비만, 아토피질환 등은 한의학적으로 火熱의 병기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질환의 주요 원인인 스트레스, 과식, 고량식, 음주 등은 체내

에서 熱을 發生시키기 때문이다. 한의학의 原典인『黃帝內經』에서는 “肥者令人內熱¹⁾”이라 하여 현대인들이 즐겨 찾는 기름진 음식에 의한 熱의 發生을 언급하였고, “壯火散氣, 少火生氣²⁾”라 하여 병리적인 火

1)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素問·奇病論.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176.

2)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23 “壯火之氣衰 少火之氣壯 壯火食氣 氣食少火 壯火散氣 少火生氣”

* 교신저자: 정창현,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02)961-0337, jeongch@khu.ac.kr

는 正氣를 손상시켜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金元四大家 중 李東垣³⁾은 脾胃의 질병이 많았던 시대적 배경으로 말미암아⁴⁾, 生命活動에서 脾胃의 역할을 강조하며 “사람은 胃氣를 根本으로한다.”⁵⁾라고 하였고, “脾胃의 氣가 虛하면 腎으로 下流하고 陰火가 土의 위치를 넘보게 된다.”⁶⁾라고 하여, 脾胃의 虛損으로 발생하는 火熱의 病機를 밝혔다. 朱丹溪⁷⁾는 당시 『和劑局方』의 영향으로 辛燥한 藥을 많이 쓰던 풍조에 반대하여⁸⁾, 耗損되기 쉬운 陰의 특성을 강조하며, 眞陰의 虧損으로 인한 火熱病機를 밝혔다. 인간의 慾望으로 비롯된 攝生의 실조가 肝腎의 下部에서 相火를 妄動하게 하여 病을 일으키므로, 修心, 養心과 滋陰, 養血 등의 방법으로 부족해지기 쉬운 陰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李東垣, 朱丹溪의 脾胃學說, 陰虛學說은 補土派, 滋陰派를 형성하였으며⁹⁾, 火熱病에 대해 각기 陽虛, 陰虛의 內傷火熱病機

를 제시하여 病機認識과 치료의 폭을 넓히게 하였다.

金, 元代 醫學理論의 발달은 明代로 이어져, 다양한 醫學理論이 임상을 통하여 종합, 절충되고, 理論이 다른 各派가 體系의이고 完備된 理論體系를 통해 점차 統一되어갔다.¹⁰⁾ 孫一奎¹¹⁾는 明代 醫家로서 汪石山の 제자인 黃古潭으로부터 의학을 배워 ‘劉河間 → 羅知悌 → 朱丹溪 → 汪石山’으로 이어지는 학문적 전승관계를 형성하였다¹²⁾. 하지만 『素問』, 『難經』, 『本草』, 張仲景, 劉河間, 張元素, 李東垣, 朱丹溪 등의 학설을 섭렵하면서¹³⁾,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자 노력하였고, 한 가지 학파의 사상에 집착하는 것은 올바른 의학의 연구 방법이 아니라고 여겼다.¹⁴⁾ 또 宋, 明의 理學을 主氣論의 입장에서 醫學理論에 접목하여, 原氣, 動氣, 命門 등의 개념을 정리하였다.¹⁵⁾ 이러한 학문적 정신으로 임상에 있어서도 한 가지 처방에 집착하지 않고, 반드시 表裏, 虛實, 寒熱,

3) 李杲(1180~1251)의 字는 明之이고 晚號는 東垣老人이다. 주요 저작으로 脾胃論, 內外傷辨惑論, 蘭室秘藏, 用藥法象과 脈訣指掌病識圖說, 活法機要, 醫學發明, 東垣試效方등이 있다. :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7. p. 319. 陳大舜 原著. 金남일 외 옮김. 各家學說. 서울. 대성의학사. 2001. p. 152.

4)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7. p. 198. 南茂吉. 黃帝內經이 東垣의 醫學思想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慶熙大學校 大學院. 2005. p. 1. 金末期和 元代初期의 중국은 난폭한 통치와 정치의 부패로 국민 생활이 몹시 어려웠고 전쟁이 심하여 백성들이 집 없이 떠돌아다니며 배고픔과 기아로 비위의 질병이 많았을 뿐 아니라, 비위의 영양흡수능력을 잃어 체력이 약해져 모든 병의 원인이 되었다.”

5) 李東垣. 東垣醫集·脾胃論·飲食勞倦所傷始爲熱中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80. “人以胃氣爲本”

6) 李東垣. 脾胃論·飲食勞倦所傷始爲熱中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80. “脾胃氣虛 則下流於腎 陰火得以乘其土位.”

7) 朱丹溪(1282년~1358년)는 元나라 婺州 義烏(현재 浙江省 義烏縣)사람으로 본명은 震亨, 字는 彥修이다. 주요 저작으로 格致餘論, 局方發揮, 金匱鉤玄, 本草衍義補遺, 脈因證治 등이 있으며, 그의 문인들이 朱丹溪의 임상경험을 정리한 것으로 丹溪心法, 丹溪心法附餘가 있다. : 陳大舜 原著. 金남일 외 옮김. 各家學說. 서울. 대성의학사. 2001. pp. 237-238.

8)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7. p. 196.

9)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7. pp. 193-194.

10)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7. p. 237.

11) 孫一奎는 字는 文垣이며 號는 東宿, 生生子이다. 明代의 醫家로서 安徽省 休寧縣 사람이다. 嘉靖, 萬曆年間(서기 1522~1619년)에 活動하였다. 저서로는 明證을 爲主로 하여 表裏寒熱虛實氣血의 여덟 개의 辨證原則을 세운 赤水玄珠, 醫論轉輯이라 할 수 있는 醫旨緒餘, 그의 醫案을 記錄한 孫氏醫案이 있다. : 陳大舜 외 엮음. 金남일 외 옮김. 各家學說. 서울. 대성의학사. 2001. p. 297. 姜顯昊. 孫一奎의 生涯와 學術思想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 大學院. 2000. p. 87.

12) 姜顯昊. 孫一奎의 生涯와 學術思想에 관한 研究. 大田大學校 大學院. 2000. p.13.

13)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1233. “又合法亦匪易疎也 脫非生平融通素難本草仲景潔古守眞東垣丹溪諸書 不可以語此祕密 醫何容易談也”

14)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16. “且不贊師訪友 局守一家之說 濫稱專門焉能擴充”

15) 明代(1368~1644) 初期는 程朱學을 존중하여, 上流社會에 朱子學이 流行하였다. 朱熹(1130~1200)는 理氣二元論자로, 정신과 물질은 상호 의존적인 것으로 보고 “理不在氣先 氣亦不在理後”라 하였다. 1472~1528年間的 王守仁은 “天地間一氣而已矣”, “理者氣之條理, 氣者理之運用”이라 하여, 氣一元論적인 관점에서 理, 氣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孫一奎는 朱子學의 理氣論을 받아들이면서도, 생명활동은 一氣의 흐름일 따름이라고 하여, 主氣論의 입장을 취하였다. : 洪元植 編著.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7. p. 236. 張岱年. 金백희 옮김. 中國哲學大綱(上). 서울. 까치. 2000. pp. 198-201. 陳大舜 외 엮음. 金남일 외 옮김. 各家學說. 서울. 대성의학사. 2001. p. 303.

氣血의 구분을 통한 ‘明證’, 즉 병증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강조하였다.¹⁶⁾ 또 火熱의 病機에 대해서도 한 가지 학파의 학설을 따르지 않고, 內외의 발병경로와 正氣의 虛實을 살펴 外, 內의 君火, 相火로 구분하여 다스릴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火熱病機學說에 대해 外君火, 外相火, 內君火, 內相火로의 체계적인 구분을 가하며 李東垣, 朱丹溪의 內傷病機를 內相火에 포함시키고 각기 陽虛, 陰虛로 구분하였다. 또 이들이 충분히 밝혀내지 못하였던 ‘下元陽虛’의 火熱病機를 밝혀내어 內傷火熱病機學說을 더욱 정밀하게 만들었다. 孫一奎의 이러한 火熱病機에 대한 統合的, 體系의 인식방법은, 현대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火熱疾病의 진단과 치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는 姜顯昊¹⁷⁾가 ‘孫一奎의 生涯와 學術思想에 관한 研究’를 통해 生涯와 著書, 師承關係, 醫學思想, 臨床經驗, 醫案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는 孫一奎의 주요 학술사상에 대해 폭넓고 다양하게 소개하여, 그의 학술사상을 전반적으로 알리는 데에 일조하였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孫一奎의 火熱病機學說에 대한 연구 결과가 상세히 알려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그의 火熱病機學說에 대한 考察을 통해, 현대의 火熱疾病의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이론적 근거 마련에 일조하고자 한다.

孫一奎의 火熱病機學說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인식하고, 연구하였다.

첫째, 생리적 命門, 君火, 相火의 개념이다. 君火, 相火는 五行중 火의 범주로 논의되고 있으며, 命門은 ‘非水非火’라 하여, 原氣, 動氣와 함께 太極과 유사한 개념으로 설정되고 있다.¹⁸⁾ 太極, 命門, 君火, 相火 등에

대한 『醫旨緒餘』논의를 중심으로 이를 연구하였다.

둘째, 火熱病機를 內, 外의 君火, 相火로 구분하는 기준과 의미이다. 火熱病에 대해 外君火, 外相火, 內君火, 內相火로 체계적인 구분을 하면서, 결국 하나의 君火, 相火로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赤水玄珠』의 「火熱門」, 「暑門」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새로이 밝혀낸 ‘下元陽虛 火熱病機’의 개념과 의미이다. 李東垣의 脾胃陽虛 火熱病機, 朱丹溪의 肝腎陰虛 火熱病機와 구분되는 그의 독자적인 病機學說을 『赤水玄珠·腹脹門』, 『醫旨緒餘』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넷째, 內傷火熱病機學說의 주류를 이루었던 李東垣, 朱丹溪의 學說과의 비교이다. 시대적 영향으로 脾胃虛損, 眞陰虧損의 火熱病機를 강조하였던 李東垣, 朱丹溪와, 이들의 영향 속에서 독자적, 통합적인 견해를 밝힌 孫一奎의 특징적인 면모를 比較 考察을 통해 살펴보았다. 孫一奎의 著書는 醫聖堂의 『赤水玄珠全集』¹⁹⁾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中國中醫藥出版社의 『孫一奎 醫學全書』²⁰⁾와 『四庫全書·子部·醫家類』의 『赤水玄珠』, 『醫旨緒餘』²¹⁾를 참고하였다. 그리고 국내 논문 1편인 ‘孫一奎의 生涯와 學術思想에 관한 研究’²²⁾를 통해 전반적 학술사상을 살펴보았다. 李東垣의 著書는 人民衛生出版社의 『東垣醫集』²³⁾을 기본으로 하였다. 그리고 국내 논문 1편인 ‘黃帝內經이 東垣의 醫學思想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²⁴⁾를 통해, 李東垣의 學術思想을 살펴보았다. 그 외 ‘東垣脾胃論 譯釋’²⁵⁾ 등을 번역에 참고하였다. 朱丹溪의 著書는 人民衛生出版社의 『丹溪醫集』²⁶⁾을 기본으로

19)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20) 孫一奎 原著. 張印生 外 主編. 孫一奎 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21)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 34 赤水玄珠 醫旨緒餘. 서울. 大星文化社. 1995.

22) 姜顯昊. 孫一奎의 生涯와 學術思想에 관한 研究. 대전. 大田大學校 大學院. 2000.

23) 李東垣 原著. 丁光迪 外 編校. 東垣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24) 南茂吉. 黃帝內經이 東垣의 醫學思想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慶熙大學校 大學院. 2005.

25) 李東垣 原著.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제5기 졸업준비위원회 編譯. 東垣 脾胃論 譯釋. 서울. 大星文化社. 1999.

16)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16. “是書專以明証爲主 蓋醫難於認証不難於用藥 凡証不拘大小輕重俱有寒熱虛實表裏氣血八箇字 苟能於此八箇字認得眞切 豈必無古方可循...故古謂審証猶審敵知已知彼百戰百勝矣”

17) 姜顯昊. 孫一奎의 生涯와 學術思想에 관한 研究. 대전. 大田大學校 大學院. 2000.

18) 이는 宋·明理學의 영향을 받은 부분으로,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孫一奎가 醫旨緒餘를 통해 밝혀놓은 부분을 중심으로 太極論과 動氣, 命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하였다. 그리고 국내 논문 2편인 ‘朱丹溪의 『黃帝內經』素問 이해에 관한 考察²⁷⁾, ‘朱丹溪의 陽有餘陰不足論에 관한 研究²⁸⁾를 통해 朱丹溪의 學說사상을 살펴 보았다.

II. 本 論

1. 動氣, 命門, 君火, 相火의 概念

1-1 動氣, 命門, 君火, 相火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太極論의 의미

『醫旨緒餘』에서는 動氣, 命門 등을 논하기에 앞서, 그 이론적 배경으로 宋明理學의 宇宙論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天地와 萬物의 生成變化原理를 통해 人體生理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다²⁹⁾. 이에 대해 周敦頤³⁰⁾의 「太極圖」를 인용, “無極·太極 → 動靜·陰陽 → 五行 → 化生萬物”의 과정을 제시하였다.

이는 萬物이 “無極·太極 → 動靜·陰陽 → 五行 → 化生萬物”의 과정으로 生成됨을 의미한다. 첫 번째 단계인 太極³¹⁾은 天地, 萬物의 理라 하였다³²⁾.

理³³⁾는 太極이며 本然의 妙함이요 造化의 綱紀이며 사람과 萬物의 뿌리로³⁴⁾, 天地間에 흘러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였다.³⁵⁾ 즉 太極의 理는 ‘太極 → 陰陽 → 五行 → 萬物’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나누어지거나 바뀌지 않고 각각의 성분 속에 모두 존재한다는 것이다³⁶⁾. 그러므로 天地와 萬物은 모두 太極의 理로서 一體가 된다고 하였다³⁷⁾. 사람도 역시 萬物과 함께 天地間 大氣 속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또한 같은 太極의 理를 갖추게 된다고 하였다³⁸⁾. 즉 개별적인 男女가 모두 하나의 太極을 갖추고 있으며, 男女의 交合으로 發生되는 人 역시 같은 太極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³⁹⁾. 이로서 人의 發生 변화에 대해서도 天地 萬物과 같은 규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인 ‘動靜’과 ‘陰陽’에 대해서는 각각 ‘理’와 ‘氣’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動靜은 理에 해당하며⁴⁰⁾, 陰陽은 氣에 해당한다고 하였다⁴¹⁾. 氣는 天地間에서 실제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에 해당하고, 理는 이러한 변화의 規율에 해당하는 것이다⁴²⁾.

33) 宋明理學에서 理는 우주의 보편 법칙으로서의 天理, 인간 본성이 되는 性理, 윤리와 도덕 규범이 되는 倫理, 사물의 본질과 규율이 되는 物理, 理氣의 상대적 문제로 표현될 때의 異性이 되는 理의 다섯 가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 陳來 지음. 안재호 옮김. 송명성리학. 서울. 예문서원. 2004. pp. 42-43. 崔溶佑. 宋明理學과 素問. 周易의 天人相應思想 研究. 서울. 慶熙大學校 大學院. 2000. p. 6.

34)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1182. “理者太極也 本然之妙也 所以紀綱造化根柢人物 流行古今不言之蘊也”

35)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1182. “太極之妙 流行於天地之間者 無乎不在而無物不然也”

36)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1181. “故朱子曰 太極只是天地萬物之理 在天地統體一太極 在萬物萬物各具一太極 即陰陽而在陰陽 即五行而在五行 即萬物而在萬物”

37)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1181. “生生子曰 天地萬物本爲一體 所謂一體者太極之理在焉”

38)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1181. “人在大氣中亦萬物中一物爾 故亦具此太極之理也”

39)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1182. “其下一圈爲乾男坤女者 所謂男女一太極也”

40)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1182. “動靜理也 理者太極也本然之妙也”

41)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1182. “陰陽氣也 一氣屈伸而爲陰陽”

42)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1182. “生

26) 朱丹溪 原著. 浙江省中醫藥研究院文獻研究室 編校.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27) 金知煥. 朱丹溪의 黃帝內經 素問 理解에 관한 考察. 서울. 慶熙大學校 大學院. 2006.

28) 梁光烈. 朱丹溪의 陽有餘陰不足論에 관한 研究. 서울. 慶熙大學校 大學院. 2001.

29) 周敦頤, 張載, 朱熹, 王守仁 등을 거치며 전개되는 宋明理學의 내용을 모두 살피기는 어려우므로, 본 논문에서는 孫一奎가 原氣, 動氣, 命門 등의 개념 정립을 위해 醫旨緒餘에 밝힌 부분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30) 周敦頤(1017년~1073년), 字 茂叔이다. 주요 저작으로는 太極圖說과 通書가 있다. : 陳來 지음. 안재호 옮김. 송명성리학. 서울. 예문서원. 2004. pp. 77-79. 85-86.

31) “太極：易學 용어. 太極은 만물의 氣가 뒤섞여 나누어지지 않은 原始상태를 가리키는데, 이로부터 氣의 운동이 陰陽으로 나뉘고 陰陽으로부터 四時가 생겨나며, 더 나아가 天·地·雷·風·水·火·山·澤 등의 자연 물질이나 현상이 나타난다.”: 傳統醫學研究所 編纂.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2000. p. 2380.

32)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1181. “故朱子曰 太極只是天地萬物之理”

理와 氣는 서로 떨어지지 않고 함께 습의 상태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⁴³⁾. 그리고 氣는 陰陽에서 처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의 ‘一氣’가 변화하여 그 편차가 陰陽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였다⁴⁴⁾. 이는 本然의 상태인 ‘太極’으로부터 萬物이 분화 發生되는 과정에서 理와 氣가 항상 함께 작용함을 설명하는 것이다. ‘氣’는 陰陽의 분화 이전에 ‘一氣’로 존재한다고 하였으므로, 곧 생명활동의 가장 근원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⁴⁵⁾

1-2 動氣, 命門, 君火, 相火의 개념

1-2-1 陰陽二氣 分化以前の 氣인 原氣, 動氣, 命門

『醫旨緒餘』에서는 人間이 天地의 變化規律, 즉 太極, 陰陽, 五行의 규율에 따른 氣化, 成形의 과정을 통해 生成變化한다 보고⁴⁶⁾, 原氣, 動氣, 命門 등을 太極과 유관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를 콩이 싹 트고 자라는 과정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父母의 精이 妙合하고 凝하여 男女가 아직 나뉘지 않았을 때, 먼저 二腎이 發生하게 된다. 이는 마치 콩이 싹터서 나올 때에 두 떡잎이 나뉘어 열리면서 그 가운데에 뿌리가 發生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二腎의 사이에 간직된 眞氣는 ‘심 없는 생명활동의 기틀(生生不息之機)’이 되므로 動氣라고 하고, 또 原氣라고 한다. 發生의 태초에 부여받아, 無

에서 有가 되는 것이다.⁴⁷⁾”

여기서 動氣, 原氣는 發生의 시작에서부터 부여받아(稟於有生之初) 生命活動을 지속하게 하는 근원적 생명력(生生不息之機)이라 하였으므로, 선천적인 稟賦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原氣는 “太極의 本體이다.⁴⁸⁾”라고 하여, 太極의 本을 의미한다. 動氣에 대해 “腎間動氣는 사람의 生命, 五臟, 六腑, 十二經脈의 근본, 호흡의 門, 三焦의 근원이 된다 하였으니, 命門의 뜻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儒의 太極, 道의 玄牝과도 같은 것이다.⁴⁹⁾”라 하였고, 또 “太極의 用”이라고도 하였다⁵⁰⁾. 動氣, 原氣가 모두 太極에 해당하지만, 動氣는 보다 적극적으로 分化, 生成으로 이어지는 氣를 의미하고 있다. 原氣, 動氣가 그 실체는 같은 것이지만 보다 근원적인 존재로서 原氣를, 보다 분화발달의 준비 과정으로서 動氣를 인식한 것이다. 이는 無極, 太極의 관계를 통해 原氣, 動氣를 無極, 太極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⁵¹⁾

命門은 腎間動氣로 造化의 樞紐⁵²⁾이며 陰陽의 뿌리로, 太極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였다. 五行은 이로부터 發生되어 臟腑가 이루어지므로 命門을 五行의 水, 火나 臟腑, 經絡으로 논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⁵³⁾

47)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1183. “夫二五之精妙合而凝 男女未判而先生此二腎 如荳子菓實出土時 兩瓣分開而中間所生之根蒂 內含一點眞氣以爲生生不息之機 命曰動氣 又曰原氣 稟於有生之初 從無而有”

48)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1183. “此原氣者 即太極之本體也”

49)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1184. “越人亦曰 腎間動氣者 人之生命 五臟六腑之本 十二經脈之根 呼吸之門 三焦之原 命門之義 蓋本於此 猶儒之太極 道之玄牝也”

50)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1183. “名動氣者 蓋動則生亦陽之動也 此太極之用所以行也”

51) 醫旨緒餘에서는 ‘無極의 참된 기틀(無極眞機)’, ‘무극의 참됨(無極之眞)’이라 하여, 無極에 대해 分化 이전의 本然적 의미로 보고 있다. :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1182.

52) “樞紐: 문지도리와 인근. 사물의 관건이나 서로 연결된 사물의 중심 부분의 비유.”: 李家源. 安炳周 監修. 大漢韓辭典編纂室 編. 教學大漢韓辭典. 서울. 教學社. 2002. p. 1599.

53)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1185. “命門乃兩腎中間之動氣 非水非火 乃造化之樞紐 陰陽之根蒂 即先天之太極 五行由此而生 臟腑以繼而成”

生子曰 天地間非氣不運”

43)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1182. “生生子曰 天地間非氣不運 非理不宰 理氣相合而不相離者也”

44)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1182. “陰陽氣也 一氣屈伸而爲陰陽”

45) 宋明理學의 理氣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보다 고찰하여야 할 부분으로 여겨진다. 다만 孫一奎는 ‘사람과 天地가 없 없이 생명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모두 一氣의 흐름일 뿐이다.’라고 하여 氣一元論의 입장에서 太極論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 孫一奎. 醫旨緒餘, 1203. “生生子曰 人與天地生生不息者 皆一氣之流行爾”참고.

46)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1183. “生生子曰 天人一致之理 不外乎陰陽五行 蓋人以氣化而成形者 即陰陽而言之”

즉 命門에 대해 太極과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하며, 動氣와 같이 끊임없이 변화를 일으키며 萬物을 생성해 가는 생명활동의 근원적 개념으로 본 것이다.⁵⁴⁾ 다만, 腎間의 動氣로 한정되어 人體로 국한되는 氣機의 특징을 지니는 氣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⁵⁵⁾ 즉 原氣, 動氣를 만물이 공유하는 보편적, 근원적 一氣로 본다면, 命門, 腎間動氣는 人體로 국한되는 개별적 一氣의 의미로 본 것이다. 이에 대해 『醫旨緒餘』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命門은 腎間의 動氣로, 사람의 生命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精神이 머무르며, 原氣가 이어져 있다.”⁵⁶⁾

즉 動氣를 만물의 보편적, 근원적 一氣로 본다면, 命門은 ‘腎間動氣’로서 人體로 국한되는 특징을 지니는 개별적 一氣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藏府, 經絡, 三焦 등은 이로부터 근본을 하므로 火의 藏府에 배속되는 君火, 相火⁵⁷⁾는 命門에 근간하여 생명활동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

太極論	無極·太極 → 人體 → 五行
生理觀	原氣·動氣 → 命門(腎間動氣) → 五臟

〈표 1〉 太極論을 통한 原氣, 動氣, 命門의 개념 설정

54)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1183. “動靜無間 陽變陰合而生水火木金土也 其斯命門之謂歟”
 55) “天地統體一太極”에서는 전체가 공유하는 하나의 理이지만, “萬物具有一太極”에서는, 개개 萬物이 고유한 氣의 특성을 지니게 되므로 보다 국한적 개념을 함께 내포하게 된다. 權赫春은 ‘朱子の 本體論과 修養論에 관한 研究’에서 만물을 개별적인 사물로 존재하게 하는 ‘各具一太極’과 보편적, 근원적으로 만물의 理를 통섭하는 ‘統體一太極’으로 보편적 이치와 개별적 이치가 함께 깃들여 있음을 언급하였다. : 權赫春, 朱子の 本體論과 修養論에 관한 研究, 서울. 權赫春, 朱子の 本體論과 修養論에 관한 研究, 서울. 慶熙大學校 大學院. 1996. pp. 16-18.
 56)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11890. “夫命門 乃兩腎中間動氣 人之生命所司 故曰精神之所舍 原氣之所繫”
 57)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2) 命門의 生命력을 담당하는 五行의 君火, 相火’에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原氣, 動氣, 命門의 개념을 太極圖의 萬物化生 圖式에 적용〈표 1〉의 과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는 萬物發生에 대한 宋明理學의 太極論에서 ‘無極·太極 → 動靜·陰陽 → 五行 → 化生萬物’의 도식을 인체에 적용하여, 原氣, 動氣, 命門을 陰陽二氣의 변화가 일어나기 前의 단계로 보고, 五臟을 陰陽二氣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五行의 개념으로 인식한 것이다. 原氣를 無極으로 動氣를 太極으로 본다면 이는 선천적인 稟賦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命門은 ‘腎間動氣’라 하여, 인체로 국한되는 氣機로서의 특징을 가지는 氣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념에 의하여 命門은 五行의 火나 水로 배속할 수 없는 것이다.

1-2-2 命門의 生命력을 담당하는 五行의 君火, 相火 孫一奎는 君火, 相火가 모두 命門의 ‘쉽 없는 생명활동(生生不息之功)’을 돕는 것이지만⁵⁸⁾, 병리적인 火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⁵⁹⁾

“人身으로 말한다면 心이 君火가 되고, 包絡, 三焦는 相火가 된다. 이는 오래도록 바뀌지 않는 정론이다⁶⁰⁾.”

五臟의 心을 君火, 包絡⁶¹⁾, 三焦를 相火로 본 것이다. 君火와 相火의 작용과 관계에 대해 『素問·天元紀大論』⁶²⁾의 “君火以名, 相火以位”⁶³⁾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58)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1217. “生生子曰 火爲五行之一 化生之機 在天在人 不可一日而無”, “君火相火皆有定體 以裨助生生不息之功 不可一日而無 故曰 天非此火不能生物 人非此火不能有生”
 59)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1217. “若彼肝腎雖皆有火 乃五志之淫火 而非五行之正火 致人疾而爲元氣之賊 不可一日而有也”
 60)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1217. “以人身言 則心爲君火 包絡三焦爲相火 亦亘古不易之定論”
 61) 心包, 包絡은 모두 心包絡의 간칭이다. : 傳統醫學研究所 編纂,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2000.
 62)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234. “君火以明, 相火以位”
 63) 素問·天元紀大論의 “君火以明”에 대해 朱丹溪는 “君火以名”으로 논하였다. 醫旨緒餘에서는 素問, 朱丹溪 등의 학설을 제해석하며 君火, 相火의 작용과 관계를 밝히고 있다.

“君火가 名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君火로서 비록 火에 속하지만, 지극히 높고 직접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正火의 名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君火는 名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64)”

“相火가 位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相火가 君火의 命을 베풀어 수행하는 것이므로, 相火는 位로서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宰相이 군주의 命을 받들어 행함이 職位상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것과 같다. 65)”

이는 君臣의 관계를 이루어 君火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至尊) 실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無爲), 相火가 君火를 보호하며 君命이 전신에 펼쳐지도록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心은 신령스런 인식(靈識)으로 “纖微⁶⁶⁾”하게 命을 주관하므로, 君主로서 神明이 출하며 깊은 곳에 단정하게 거처하여, 相火가 대신 일을 수행하는 것이라 하였다⁶⁷⁾. 君火는 生命활동의 가장 높은 단계인 神을 주관하므로 ‘至尊’하며, 心이 君主로서 인체의 모든 기관을 다스리는 것은 相火를 통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無爲’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로서 包絡과 三焦를 말하였다. 心은 君主의 火로, 命門의 가장 높은 단계의 발현인 神을 담당하며 자리를 지키고, 相火인 包絡, 三焦 등이 心을 가까이서 補佐하며 全身에 君命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包絡은 心을 싸고 이어져 있으며, 濁氣가 心을 薰蒸하지 않도록 보호하며, 心의 일을 대신 수행한다고

하였다.⁶⁸⁾ 그리고 『素問·刺禁論』의 ‘七節之傍, 中有小心’에서 小心은 包絡을 말하는 것으로 心이 上, 下로 五臟을 다스리는 통로가 된다고 하였다.⁶⁹⁾ 즉 心包는 君火를 가까이서 보호하고, 君命을 수행하는 相火가 되며, 君火는 心包를 통해 上, 下로 인체를 다스릴 수 있는 의미로 설정된 것이다.

三焦는 上焦, 中焦, 下焦로, 氣海, 膻中, 胃府, 膀胱과 이어져 主氣, 腐熟, 決瀆의 역할을 담당한다.⁷⁰⁾ 上焦는 膻中, 氣海, 宗氣와 연결되어 氣父가 된다.⁷¹⁾ 下焦는 足太陽膀胱의 別絡으로 膀胱의 主水, 主津液하는 기능을 돕기 때문에 決瀆之官이라 하였다.⁷²⁾ 下焦의 역할은 받드시 上焦, 氣海의 氣를 받아야 氣化를 통해 水道가 通하게 되므로⁷³⁾ 上, 中, 下의 三焦는 각기 별개의 三焦가 아닌 하나의 一焦가 된다고 보았다.⁷⁴⁾⁷⁵⁾ 그러므로 上焦뿐 아니라 三焦가 모두 하나로 氣를 담당하며 君命을 수행하므로, 相火가 된다고 본 것이다.

心包, 三焦는 膈上의 膻中에 위치하여 血母, 氣父

64)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1217. “夫君火以名者 蓋以君雖屬火 然至尊無爲 惟正火之名 故曰君火以名”

65)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p. 1217-1218. “相火以位者 蓋相宣行火令 而守位稟命 故曰相火以位 猶之宰相奉行君令 爲職位所宜然也”

66) “纖：(섬) 가늘다, 잘다, 가는 실.”, “纖微：몹시 얇, 미세함.”: 東亞出版社 漢韓大辭典 編纂部. 東亞漢韓大辭典. 서울. 두산동아. 1998.

67)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1199. “生生子曰此聖人觀數於物而名之也 按爾雅曰心纖也 靈識纖微 無物不貫心也 卮言曰心者深也 爲之君主神明出焉 深居端拱而相火代之以行事也”, 1198 “心者 五臟六腑之大主 精神之所舍”, 1198 “其藏堅固 邪弗能容 容之則心傷 心傷則神去 神去則死矣”

68)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1191. “包絡之護心 與宰相之近君 一也”

69)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1186. “心系有二 其一上與肺相連 入肺兩大葉間 其一由肺系而下 ... 下與腎相通蓋五臟系皆通於心 心通五臟系也 又按內臟圖 心系果如所云 據此觀之 小心即心包絡也”

70)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1192. “上焦主納而不出 其治在膻中”, “中焦主腐熟水穀 其治在臍旁”, “下焦分別清濁主出而不納 其治在臍下”

71)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1192. “有以呼上焦爲三焦者 如云三焦爲氣之父 指上焦之氣海而言也是上焦亦可以三焦稱也”

72)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1192. “有以下焦呼爲三焦者 如云決瀆之官 中瀆之府者是也 是下焦亦可以三焦稱也”

73)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1193. “蓋以水瀆在下 非氣莫導, 膀胱所藏之水 必待氣海之氣施化 乃爲溲便注泄, 是故以三焦治之 謂賴其氣而爲之前導也 故曰氣化則能出矣”

74)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1190. “泰來曰 三焦總只一而已.”. p. 1993. “下焦與三焦無彼此也 是故不分而爲二也”

75) 孫一奎는 이러한 관점에서 三焦와 下焦를 별개로 인식한 馬玄臺, 陳無擇 등에 대해 비판하고, 또 馬玄臺가 三焦를 命門과 表裏관계로 본 것은 膀胱의 別絡이 되어 원기의 別使로서 작용하는 것에 대해 잘못 인식 한 것이라고 하였다.

가 되어 血, 氣를 담당하며 表裏관계를 이룬다고 하였다.⁷⁶⁾ 또 膻中, 氣海, 宗氣 등도 膈上에서 心包, 三焦와 이어져 心を 보좌하고 氣血의 작용을 담당하므로 모두 相火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膻中은 心包, 三焦가 위치하는 膈上의 부위로, 心君과 가까운 臣使의 官이므로 喜樂이 出할 수 있다고 하였다.⁷⁷⁾ 宗氣는 氣父인 上焦에서 나와, 氣의 宗主가 되어 全身을 운행하며 쉼 없는 생명활동(生生不息)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⁷⁸⁾ 즉 心包, 三焦를 중심으로 膈上의 膻中, 氣海 등도 모두 相火로 인식한 것이다.

이상에서 孫一奎는 五藏六腑를 五行으로 나누어 心은 君火에, 心包와 三焦는 相火에 각각 배속하였다. 心包와 三焦는 君火의 俞를 받아, 전신에 君俞를 펼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心包와 三焦는 서로 表裏관계를 이루어 각각 血과 氣를 주관하는 것으로 보았고, 膻中, 氣海, 宗氣 또한 相火와 유관한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이로써 五藏의 五行 배속을 지키면서도, 五藏의 모든 계통에 氣血의 변화에 의한 火熱病機가 發生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가 마련되었다.

1-3 小結

孫一奎는 萬物發生에 대한 宋明理學의 太極論 중 ‘無極·太極 → 動靜·陰陽 → 五行 → 化生萬物’의 도식을 인체에 적용하여, 原氣, 動氣, 命門을 陰陽二氣의 변화가 일어나기 前의 단계로 보고, 五藏을 陰陽二氣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五行의 개념으로 인식하였다. 原氣를 無極으로 動氣를 太極으로 본다면 이는 선천적인 稟賦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命門은 ‘腎間動氣’라 하여, 인체로 국한되는 氣機로서의 특징을 가지는 氣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념에 의하여 命門은 五行의 火나 水로 배속할 수 없는 것이다. 五藏六腑를 五行으로 나누어 心은 君火에, 心包와 三焦는 相火에 각각 배속하였다. 心包와 三焦는 君火의 俞를 받아, 전신에 君俞를 펼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心包와 三焦는 서로 表裏관계를 이루어 각각 血과 氣를 주관하는 것으로 보고, 膻中, 氣海, 宗氣 또한 相火와 유관한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이로써 五藏의 五行 배속을 지키면서도, 五藏의 모든 계통에 氣血의 변화에 의한 火熱病機가 發生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가 마련된 것이다.

2. 火熱病機學說

孫一奎는 병리적 火의 개념을 ‘內外君相’으로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먼저 ‘內外⁷⁹⁾’의 疾病發生經路를 구분하고, 그에 따라 각기 外의 君火, 相火, 內의 君火, 相火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內, 外의 구분을 하는 것은, 이에 따라 病機의 특징이 달라져 治法의 차이가 發生하기 때문이다.⁸⁰⁾ 外의 君火, 相火는 六淫의 熱, 暑에 의해 體表의 氣血이 感한 것이다.⁸¹⁾ 內의 君火, 相火는 攝生의 문제로 인하여 正氣가 스스로 虛實의 변화를 통해 火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⁸²⁾ 그렇다고 內, 外의 君火와 相火가 각기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君火와 相火를 결정하는 것은 內, 外 모두 熱이 감촉된 부위가 心의 藏, 府, 經絡인지 心包와 三焦의 系統인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⁸³⁾ 다만, 外感에서는 邪氣의 所在와 屬

79) 內外는 內感, 外傷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赤水玄珠의 표현에 따라 ‘內’, ‘外’로 약칭한다.

80)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61. “外內之因不動 補瀉之治自別”

81)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61. “夫外者 火邪自天 氣血感之而爲病也”

82)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61. “內者人之調養失宜 正氣自傷而爲病也”

83)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61. “以君相二火限於心腎非也 隨其所寓而名之”, 赤水玄珠·火熱門 60. “觸之於心之經 心之絡 心之臟 皆君火也 … 若觸之於包絡 觸之於三焦 此相火也”

76)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1191. “又三焦爲氣父 包絡爲血母 從心肺而言也 以心主血 肺主氣 皆居膈上 故曰膻中之分 父母居之 氣之海也”

77)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1191. “蓋膻中者臣使之官 喜樂出焉 以近心君 故喜樂由之”

78)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1202. “生生子曰 宗氣者爲言氣之宗主也 此氣搏於胸中混混沌沌 … 胸中即膻中 膻中之分 父母居之 氣之海也 三焦爲氣之父 故曰宗氣出於上焦也”

성이 중심이 되고, 內傷에서는 正氣의 虛實이 중심이 된다. 하지만 外感에서도 正氣의 虛實을 함께 살펴야 하며, 內傷에서도 邪氣의 屬性과 所在를 함께 살펴야 한다. 그러므로 君火와 相火는 內, 外에서 모두 正氣의 虛實과 邪氣의 所在, 屬性의 문제로 歸結되어 하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2-1 外, 內的 君火, 相火 구분 인식

2-1-1 邪氣를 중심으로 하는 外의 君火, 相火

外感의 君火, 相火는 體表의 氣血이 六氣에 感하여 발생하게 된다.⁸⁴⁾ 『赤水玄珠·火熱門』에서는 특히 六氣의 君火, 相火인 熱, 暑를 통해 그 病機를 설명하고 있다.⁸⁵⁾ 病因으로서 熱, 暑는 發病에 있어서 君火인 心과 相火인 心包, 三焦의 體系의 차이를 유발한다.⁸⁶⁾ 君火인 心이 生理적으로 ‘至尊無爲’의 특성을 보였듯이, 君火의 病變도 ‘靜’의 양상을 보이게 된다.⁸⁷⁾ 가령 瘡瘍, 癰疽, 結核 등은 ‘靜’의 양상을 보이는 疾病으로 君火에 해당한다.⁸⁸⁾ 相火인 心包, 三焦가 生理적으로 ‘宣行火令’의 특성을 보였듯이, 相火의 病變도 ‘動’의 양상을 보이게 된다. 가령 狂越, 氣逆上衝, 瘡癰 등은 ‘動’의 양상을 보이는 疾病으로 相火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外感의 君火와 相火는 熱의 輕重의 차이로 나타나며, 그 치법은 모두 正治法을 원칙으로 한다. 또 邪氣의 表, 裏, 半表半裏 所在에 따라 瀉之, 瀉之·下之·利之, 和之의 치법을 사용하게 된다.⁸⁹⁾ 孫一奎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外感의 君火, 相火는 모두 熱이 주가 되므로 寒涼의 正治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지 熱의 微甚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⁹⁰⁾.”

邪氣의 屬性과 所在를 우선적으로 살피는 外感病機의 특성상, 邪氣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熱, 暑의 屬性은 心火를 향진시키기 쉬우므로 正治法으로 清心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것이다⁹¹⁾. 하지만 外感의 火熱病에 대해 모두 正治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正氣가 耗損되었을 경우 이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가령 暑邪에 感하여 發熱이 나타나는 경우라 하더라도, 暑熱이 氣를 傷하여 脈이 虛하다면 補法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⁹²⁾. 正氣의 損傷을 고려하지 않고, 급하게 차가운 물을 마시게 한다면 오히려 中氣가 損傷되어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⁹³⁾. 正氣의 虛損을 살펴야 하는 경우에 대해 『脾胃論·長夏濕熱胃困尤甚用清暑益氣湯』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素問·刺志論』에서 氣虛하면서 身熱이 발생하는 것은 暑에 傷한 것이라 하였는데, 熱에 氣가 상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暑邪가 衛氣를 침범하여 身熱, 自汗이 발생하니, 黃芪의 甘溫함을 君藥으로 삼아 補하고, 人參, 橘皮, 當歸, 甘草의 甘微溫함을 臣藥으로 삼아 補中益氣하며... 虛한 사람은 化源을 자양해야 하니 人參, 五味子, 麥門冬의 酸甘微寒으로 佐

84)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61. “夫外者 火邪自天 氣血感之而爲病也”

85)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61. “以外君相言之 經有六節之序 ... 自春分 至小滿 爲二氣 君火 其令熱 自小滿 至大暑 爲三氣 相火 其令暑”

86)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61. “如君火之化熱 感之則 手少陰心 太陽小腸 臟腑主之 相火之化暑 人感之則 手厥陰心包 少陽三焦 臟腑主之”

87)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62. “夫君少陰也 而心又主血 血屬陰 爲病主靜”

88)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62. “故凡靜者 皆君火之症也 如痛痒瘡瘍 癰疽瘤氣 ... 之類 皆君火 使之然也”

89)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62. “其在

表者發之 在裏者瀉之利之下之 半表半裏者和之 如柴胡黃芩瀉肝胆之火 ... 此外君相之症治者也”

90)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61. “夫君相之火 俱主於熱 宜用寒涼正治 但熱微甚之不同耳”

91)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78. “暑熱喜歸心 心中之使人嗜悶昏不知人”, “治暑之法 清心利小便甚好”

92)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79. “經曰 脈盛身寒得之傷寒 脈虛身熱得之傷暑 傷暑則不惡寒而脈虛爲異也 故從小柴胡湯加知母石膏 或人參白虎湯 或清暑益氣湯”

93)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78. “中暑之証... 其脈浮虛 名曰暑風 慎不可用冷水 及純大寒之劑”

藥을 삼아 暑邪에 傷한 庚金을 구하는데,
이것이 清暑益氣湯이다.⁹⁴⁾”

즉 外感의 火熱病은 邪氣의 屬性과 所在를 중심으로 살피되, 正氣의 虛實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外感 君火, 相火의 대강을 말한 것이다. 熱, 暑 이외의 風, 寒, 濕 등도 ‘化熱’의 기전에 의해 火熱病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런데 邪氣의 유입은, 반드시 正氣의 虛를 전제로 하므로, 이는 주로 相火의 虛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君火가 虛하다면 ‘化熱’의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心, 心包, 三焦 이외의 다른 藏府에서 熱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藏府에서 정기의 虛實, 邪氣의 鬱滯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五行配屬을 따라, 반드시 心, 心包, 三焦의 작용을 통해 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계통을 心, 心包·三焦로 구분할 수 있게 된다. 治法에 있어서 邪氣를 중심으로 살핀다면 正治法을 위주로, 所在에 따라 發散, 瀉下, 和解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正氣의 虛損이 동반된 경우에는 그 정도를 살펴 補法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2-1-2 正氣를 중심으로 하는 內的 君火, 相火

內傷의 火熱病은 勞倦, 房勞, 飲食不節, 七情過極 등 調攝養生의 문제로 經絡, 藏府의 正氣가 傷하여 발생하게 된다⁹⁵⁾. 君火, 相火는 外感에서와 마찬가지로 正氣의 虛實, 邪氣의 所在, 屬性 등에 따라 구분된다. 다만 正氣의 虛가 발생하기 쉬운 內傷의 특성상, 正氣의 虛實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邪氣의 所在와 屬性을 함께 고려하게 된다. 대체적으로 君火는 正氣가 有餘한 實火에, 相火는 正氣가 不足한 虛火에 해당한다.⁹⁶⁾ 正氣의 虛實은 膻中之 氣海, 宗氣의 상태로 구

분한다.⁹⁷⁾ 氣海, 宗氣는 上焦에 해당하며, 包絡, 三焦를 통해 전신으로 운행되므로, 相火로 볼 수 있다. 相火로 正氣의 虛實을 구분한 것은, 君火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相火가 실제적인 氣의 運用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赤水玄珠·火熱門』에서는 “膻中之 氣가 鬱滯된 곳을 따라 病이 된다.⁹⁸⁾”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相火의 虛, 實로 인해 鬱滯가 발생한 것을 虛火, 實火로 본다는 것이다. 이때 火의 정도가 심하여 心의 계통에 영향을 미친다면 君火가 된다.⁹⁹⁾ 相火는 虛, 實을 모두 이야기 하면서, 君火는 實火만을 언급한 것은, 君火가 虛해졌을 경우에는 火熱病이 발생하기 어렵고, 대부분 亢進된 상태에서 熱의 機轉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相火는 實, 虛의 경우에 모두 火熱病이 발생할 수 있다. 相火가 虛하다더라도, 君火는 보존되어 있으므로 化熱의 기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正氣의 虛가 동반되기 쉬운 內傷의 특성상, 君火는 實火, 相火는 虛火로 대체적인 구분을 하는 것이다. 邪氣가 心의 經, 絡, 臟에 감촉된 것은 內君火이며, 包絡, 三焦에 감촉된 것은 內相火에 해당한다.¹⁰⁰⁾ 다른 藏府에서도 內的 君火, 相火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각 藏府에 火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藏府의 虛, 實에 따라 膻中之 氣의 鬱滯가 발생하므로 火熱病이 발생하는 것이다. 生理觀에서도 드러나듯, 孫一奎는 君火, 相火를 모두 膈上에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¹⁰¹⁾ 相火에 해당하는 心包, 三焦가 血, 氣를 주관하며 表裏關係를 이

氣之不足則爲虛火”, “故內之君火者 實火也”, “內之相火者 虛火也”

97)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62. “蓋人之氣生發於胃 聚於膻中 膻中者 乃心前空虛之位 名曰氣海 又曰宗氣 其氣之餘 由肺運於一身 通調水道 下輸膀胱 水精四布 五經並行 以爲生生不息之運用”

98)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62. “夫膻中之氣 隨其所寓鬱滯而爲病”

99)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61. “觸之於心之經 心之絡 心之臟 皆君火也”

100)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60. “觸之於包絡 觸之於三焦 此相火也”

101)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1197. “午位居上 故火旺於午 在人心應之 故心居上. 子位居下水旺於子 在人以腎應之 故腎居下.”

94)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83. “東垣曰 刺志論云 氣虛身熱 得之傷暑 熱傷氣故也 … 今暑邪干衛 故身熱自汗 以黃耆 甘溫補之爲君 人參陳皮當歸甘草 甘微溫補中益氣爲臣 … 虛者滋其化源 以人參五味子麥門冬 酸甘微寒 救天暑之傷於庚金爲佐 名曰清暑益氣湯”

95)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62. “內之君相者 正氣自傷爲病”, “若夫起居動靜調養失宜 過於勞倦 房事 醉飽 耽食肥甘辛辣厚味之屬 以致經絡臟腑因之受傷”

96)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62. “夫實者 正氣之有餘也 虛者 正氣之不足也”, “氣之有餘則爲實火

루어 전신을 運行하므로, 氣血의 변화에 의해 다른 臟府에서도 火熱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相火가 下部에 존재한다는 朱丹溪의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¹⁰²⁾ 相火를 下部에 따로이 설정함으로써, 자칫 火의 攻伐에 치우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이다. 火의 소재를 五行의 正配合에 국한시키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太極論의 전체적 관점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⁰³⁾ 火의 屬性에 대해서는 “君火는 人火와 같고, 相火는 天火와 같다.¹⁰⁴⁾”고 하였다. 이는 相火가 天의 龍, 雷, 波와 같이 猛烈하고 動的인 屬性을 지니고 있다는 朱丹溪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¹⁰⁵⁾ 火의 屬性和 所在의 문제는 外의 君火, 相火에서와 같이, 생리적 속성과 일치하고 있다. 君火인 心の 系統에 發生한 경우에는 君主의 德性을 따라 다소 靜인 변화를 일으키므로 ‘人火’라 하는 것이다. 相火인 心包, 三焦의 系統에 發生한 경우에는, 相火의 活動적인 특성을 따라 난폭하고 맹렬하게 병변이 나타나게 되므로 ‘天火’라 하는 것이다.¹⁰⁶⁾

正氣의 虛實에 따라 實火는 瀉法을 사용하며, 虛火는 補法을 위주로 하되 邪氣의 정도에 따라 瀉法, 緩法 등을 함께 사용한다.¹⁰⁷⁾ 가령 小腸, 膀胱에 鬱熱

이 발생한 實火의 淋證에 대해서는 梔子, 木通, 知母, 黃柏 등으로 다스린다¹⁰⁸⁾. 하지만 小腸, 膀胱의 氣虛로 小便을 運化시키지 못해 발생한 虛火의 淋證에 대해서는 人參, 黃芪, 白朮, 茯苓, 木通 등으로 補法과 瀉法을 함께 사용하여 다스린다.¹⁰⁹⁾ 膀胱은 下焦로부터 氣海의 氣를 받아야, 津液을 氣化하여 小便을 보낼 수 있다. 그런데 正氣 곧, 相火가 虛해진다면, 氣海의 氣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小便이 運化되지 못하는 것이다¹¹⁰⁾. 그러므로 補虛의 治法을 위주로 다스리게 된다.

邪氣의 屬性에 따른 內君火, 內相火의 치법에 대해 『赤水玄珠·火熱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君火는 人火와 같아서, 물로 끌 수 있고, 正治法으로 다스릴 수 있다. 黃連의 苦味로 瀉하여야 한다.¹¹¹⁾”

“相火는 天火와 같아서, 물로 끌 수 없고, 正治法으로 다스릴 수 없다. 火의 屬性을 따라서 다스려야 한다. 黃柏의 辛味로 다스려야 한다.¹¹²⁾”

즉 火의 屬성이 人火와 같은 君火는 正治法을, 天火와 같은 相火는 從治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內의 君火, 相火는 正氣의 虛實, 邪氣의 所在, 屬性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君火는 實火, 人火, 心の 系統에 발생한 火이며, 相火는 虛火, 天火, 心包, 三焦의 系統에 발생한 火이다. 하지만 이는 대체적인 구분을 의미하며, 相火는 正氣가 有餘한

102)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1217. “愚度丹溪之意 既謂肝腎之陰悉具相火 是指肝腎之陰火爲相火 … 假若以動皆屬火而遂以相火爲天火 然則君火亦有動之時也 獨不可屬之天哉 愚謂火爲造化生息之機 不能不動 第不可以妄動 火有天人之分 不可以君相分屬天人 何言之”

103) 이에 대해 ‘3. 李東垣. 朱丹溪의 學說과 比較’에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였다.

104)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62. “故曰 君火者 猶人火也 可以水滅 可以正治 惟黃連之苦瀉之 相火者 猶龍火也 不以水滅 不以正治 順其性而折之 惟黃柏之辛制之”

105)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62. “又曰 見於天者 出於龍雷 則木之氣 出於海者 則水之氣 雖其取譬 無非欲牀相火之烈.”

106) 孫一奎는 朱丹溪가 相火의 動的인 특성을 天火에 비유한 것은 받아들이고 있지만, 天火는 相火의 부분적인 속성일 뿐, 相火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朱丹溪가 相火를 天火에 비유하고, 下部에 위치하는 것으로 설명함으로써, 攻伐의 治法이 남용되므로,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3. 李東垣. 朱丹溪의 學說과 比較’에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였다.

107)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62. “實火可瀉 黃連解毒之屬 虛火可補 參朮生甘草之屬 兼瀉兼緩”

108)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62. “又醉以入房 或臨房忍精 以致小腸膀胱熱鬱不散 而爲淋濁者 治用黃柏 知母 木通 梔子之屬”

109)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63. “又有小腸膀胱氣虛 不能運化小便 而爲淋秘者 治用參朮茯苓木通之屬”

110)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63. “經曰 膀胱者州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能出矣”

111)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62. “君火者 猶人火也 可以水滅 可以正治 惟黃連之苦瀉之”

112)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62. “相火者 猶龍火也 不以水滅 不以正治 順其性而折之 惟黃柏之辛制之”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正氣의 虛實을 따라 君火는 瀉法, 相火는 補兼瀉法을 사용한다. 邪氣의 屬性을 따라 君火는 正治法, 相火는 從治法을 사용한다.

2-2 下元陽虛 火熱病機의 啓發

孫一奎는 內, 外의 君火, 相火 중에서 특히 內相火에 해당하는 病機, 즉 內傷 虛證의 火熱病機를 집중적으로 밝혔다. 『素問·調經論』“陰虛生內熱”의 원인을 다시 陽虛, 陰虛로 구분하여¹¹³⁾, 李東垣, 朱丹溪의 脾胃虛損, 眞陰虧損의 火熱病機를 內相火의 범주에서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 하였다. 또 이들의 學說로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內相火의 病機를 인식하여, 下元陽虛의 火熱病機를 추가적으로 밝혀내었다.

下元陽虛의 火熱病機를 밝힌 대표적인 경우로 脹滿證 등이 있다.¹¹⁴⁾ 『赤水玄珠·脹滿門』에서 脹滿을 熱의 病機로 보았다.¹¹⁵⁾ 이는 『素問·至眞要大論』, 朱丹溪, 劉宗厚 등의 견해를 통한 것으로, 복과 같이 속은 비어있으면서도 바깥으로 부풀어 견고한 형상을 띄는 것은 熱의 작용이라는 것이다.¹¹⁶⁾ 또 간혹 濕이나 寒에 의해 發生한다는 것¹¹⁷⁾, 病因 혹은 先行 病機로서 寒, 濕을 인식한 것이며, 標面的 最終的으로는 熱로 본 것이다. 李東垣은 ‘下虛中滿’이라 표현하며 中滿寒脹에 대해 黃芪, 人參 등의 甘溫之劑와 芡實, 薏苡仁, 乾薑 등의 辛熱, 辛溫之劑를 함께 사용하였으며¹¹⁸⁾, 또 ‘下元虛損’이라는 病機를 직접 표

현하기도 하였다¹¹⁹⁾. 孫一奎는 이러한 ‘下元’의 문제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고찰하여, 다음과 같이 ‘下元陽虛’로부터 火熱病機가 진행되어 脹滿이 되는 機轉을 설명하였다.

“『內經』, 『靈樞經』, 『靈蘭秘典』세 책을 살펴보니 下焦元氣虛寒으로 小便이不利해져서, 濕氣가 皮膚의 內와 腸膜의 外 사이에 막혀 發越되지 못하여, 腫滿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의 腫滿은 下元虛寒에서 發生한 병이다. 만일 下元을 溫補하지 않는다면 소변이 어찌 홀로 利할 수 있겠는가?¹²⁰⁾”

즉 下元의 陽虛에 의해 脾胃의 運化기능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므로 濕熱이 發生하고 鼓脹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下元和 脾胃의 관계에 대하여 아궁이의 불과 가마솥에 비유하여, 下元이 脾胃의 運化기능에 있어 선행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사람의 胃는 가마솥과 같다. 가마솥 바닥의 火가 왕성하다면 熱氣가 가마솥을 훈증하여 쉽게 밥이 익을 것이다. 만일 물만 있고 불이 없다면 上升할 氣가 없게 되니 어찌 밥이 익겠는가? 곧 이를 예로 들어 下元和 脾胃의 관계를 볼 수 있을 것이다.¹²¹⁾”

즉 下元의 火가 脾胃를 훈증하여야 비위의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113) 구체적인 내용은, ‘3) 火熱病機의 統合的, 體系的 인식’에서 언급하겠다.

114) 이 외에도 痿證門, 舌門 등에서 溫補下元의 처방을 통해 下元陽虛의 火熱病機를 설명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下元陽虛의 火熱病機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脹滿證을 통해 살펴보려고 한다.

115)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214. “是以脹滿爲熱也”

116)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214. “丹溪曰…脾土受傷 轉輸失職 胃雖受穀不能運化 故…清濁相混 隧道壅塞 濕鬱爲熱 熱又生濕 濕熱相生 遂成脹滿 經曰鼓脹是也”

117)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214. “內經曰 諸濕腫滿皆屬於脾 蓋言脾虛不能運化此脹滿之所由生也” “靈樞…又曰 內虛不足中寒濕令人中滿 又曰 胃中寒則腹滿”

118) 李東垣 原著. 丁光迪 外 編校. 東垣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158. “中滿分消湯 治中滿寒脹 寒疝…下虛中滿 腹中寒…黃芪 芡實 厚朴 草豆蔻仁 黃蘗 已上各五分 益智仁 半夏 茯苓 木香 升麻 已上各三分 川烏 澤瀉 黃連 人參 青皮 當歸 生薑 麻黃 柴胡 乾薑 薏苡仁 已上各二分”

119) 李東垣 原著. 丁光迪 外 編校. 東垣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294. “木香攝氣丸 治中滿腹脹 下元虛損者…”

120)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216. “歷考三書可見小便之不利 由下焦原氣虛寒 以致濕氣壅遏於膚 裡膜外之間不得發越勢 必腫滿 是腫滿之疾起於下元虛寒也 若非溫補下元則小便何能獨利”

121)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216. “且夫人之胃如釜然 釜底火旺則熱氣薰蒸 飪炊易熟 若徒有水而無火則無氣上升物何由熟 即此可以例觀矣”

다. 그러므로 치법에 있어서는 下元의 溫補를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脹滿을 다스리는 자는 먼저 下元을 溫補하여야 한다. 그래서 火氣가 盛해지고 濕氣가 증발되어 胃中이 따뜻해져 穀食이 쉽게 運化되도록 하여야 滿이 풀릴 것이다.”¹²²⁾”

그리고 이에 대해 人參, 白朮 등의 甘溫之劑와 破故紙, 肉桂, 附子, 乾薑 등의 辛熱, 辛溫之劑를 함께 사용하는 壯原湯¹²³⁾으로 下元과 中焦의 문제를 함께 다스리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下元의 溫補를 위주로 하면서, 脾胃의 허손 정도에 따라 함께 다스리는 치법을 구사한 것이다. 이러한 孫一奎의 견해는 결국 표면적으로 火熱의 病機를 나타낸다 하더라도 그 본을 살펴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본으로 下元陽虛의 경우가 있음을 밝혀낸 것이다. 이는 陽을 먼저 살려 陰을 회복시킨다는 측면에서는 李東垣의 견해와도 일치하는 부분이지만, 그 陽의 문제를 中과 下 어느 측면을 중심으로 인식하였는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즉 李東垣을 통해 밝혀진 ‘陽虛’에 대한 ‘脾胃’중심의 관점을 ‘下元’에까지 한층 확대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下焦의 病機를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朱丹溪의 학설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丹溪가 下焦의 陰虛를 중심으로 밝힌 것에 비하여, 孫一奎는 下焦의 陽虛를 중심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¹²⁴⁾.

下元의 陽虛를 認識하고 溫補의 치법을 啓發한 점에서, 孫一奎를 張景岳 등과 함께 溫補學派로 보기도 한다.¹²⁵⁾ 하지만 張景岳은 “兩腎 사이의 生氣는 元氣

라고 한다. 元氣는 오직 陽을 주로 하며, 陽氣는 오직 火일 뿐이다.”¹²⁶⁾라고 하여, 元氣에 있어서 陽氣가 主가 된다고 본 것에 비해, 孫一奎는 命門에 대해 “水도 아니고, 火도 아니다.”고 하여, 陰, 陽 어느 한쪽을 위주로 하는 치우침을 경계하였다. 또 『素問』, 『難經』, 『本草』, 張仲景, 劉河間, 張元素, 李東垣, 朱丹溪 등의 학설을 모두 섭렵하되¹²⁷⁾, 어느 한 가지 학파의 사상에 집착하는 것은 올바른 의학의 연구 방법이 아니라고 여겼다¹²⁸⁾. 이러한 관점에서 이미 孫一奎에 대해 특정 학파로의 소속이 어렵다는 견해도 피력되어 있다¹²⁹⁾. 즉 孫一奎가 下元陽虛의 火熱病機를 밝힌 것은, 종래에 李東垣, 朱丹溪로 이어지면서 집중적으로 조명된 內傷虛證의 火熱病機의 토대위에서, 그 부족한 점을 보충한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朱丹溪의 學說이 주를 이루던 시대적 배경 속에서, 下元陽虛의 독창적 病機認識은 溫補學派의 發生적 측면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는 있다¹³⁰⁾. 하지만 孫一奎의 핵심적인 사상은 “溫補下元”의 一個 治法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핵심 사상은 하나의 疾病에 대해 正氣의 상태와 邪氣의 所在, 屬性을 表裏, 虛實, 寒熱, 氣血로서 구분 인식하여, 당대에 밝혀진 다양한 病機, 治法과 자신이 보충한 부분을 統合的, 體系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¹³¹⁾.

122)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216. “故治脹滿者 先宜溫補下元 使火氣盛而濕氣蒸發 胃中溫煖 穀食易化則滿可寬矣”

123)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222. “壯原湯 治下焦虛寒 中滿腫脹 小水不利 上氣喘急 陰囊兩腿皆腫 或面有浮氣 人參 白朮各二錢 茯苓 破故紙各一錢 桂心 大附子 乾薑 砂仁各五分 陳皮七分”

124) 東垣, 丹溪 학설과의 차이는 ‘3. 李東垣, 朱丹溪의 學說과의 비교’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125) 김남일 외, 各家學說, 차례 6장 溫補學派 제3절 孫一奎.

126)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 45 景岳全書·卷二 君火相火論十三. 서울. 大星文化社. 1995. “蓋兩間生氣, 總曰元氣. 元氣惟陽爲主, 陽氣惟火而已.”

127)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1233. “又合法亦匪易臻也 脫非生平融通素難本草仲景潔古守眞東垣丹溪諸書 不可以語此祕密 醫何容易談也”

128)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16. “且又不贊師訪友 局守一家之說 濫稱專門焉能擴充”

129) 姜顯昊. 孫一奎의 生涯와 學術思想에 관한 研究. 대전. 大田大學校 大學院. 2000. p. 87.

130) 姜顯昊. 孫一奎의 生涯와 學術思想에 관한 研究. 대전. 大田大學校 大學院. 2000. p. 85.

131) 溫補學派와의 관계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孫一奎가 下元陽虛의 病機와 溫補下元의 治法을 밝힌 것만으로 溫補學派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孫一奎는 기존의 부족한 부분으로서 下元의 병기와 치법을 밝힌 것일 뿐이며, 그의 핵심 사상은 다른 병기와 함께 통합적,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2-3 火熱病機의 統合的, 體系的 인식

孫一奎는 外, 內의 君火, 相火를 邪氣의 屬性, 正氣의 虛實에 따라 구분하였다. 外感, 內傷의 특성상 邪氣와 正氣를 중심으로 살피는 것이지만, 결국 正氣와 邪氣를 모두 살펴 다스린다는 의미로 통합되어 사용되었다. 『赤水玄珠·火熱門』에서는 『素問』의 「陰陽應象大論」, 「熱論」, 「瘧論」, 「調經論」등을 인용, 火熱病機를 陽勝으로 총괄하고, 이를 表, 邪氣實과 裏, 正氣虛의 病機를 의미하는 陽盛, 陰虛로 구분하였다. 陰虛를 다시 陽虛, 陰虛로 구분하며, 陽虛를 또 脾胃陽虛와 下元陽虛로 구분하였다. 이는 火熱病機에 대해 正氣의 虛實과 邪氣의 所在, 屬性에 따른 統合的, 體系的 認識을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素問·陰陽應象大論』의 “陽이 勝하면 熱이 발생한다.”¹³²⁾를 인용, 火熱病機를 陽勝으로 총괄하고¹³³⁾, 『素問·瘧論篇』의 “陰이 虛하면 內熱이 발생하고, 陽이 勝하면 外熱이 발생한다.”¹³⁴⁾를 인용, 다시 陽盛, 陰虛로 다시 구분하였다¹³⁵⁾.

陽盛에 대해 『素問·陰陽應象大論』의 “陽이 勝하면 몸이 더워지면서도 腠理가 닫히니, 숨이 가쁘며 거칠어져 몸을 구부렸다 폈다 하며 땀이 나지 않고 열이 나니, 그러므로 치아가 마르고 가슴이 괴로워 답답해하고 배가 그득하여 죽으니, 겨울은 견디지만 여름은 견디지 못합니다.”¹³⁶⁾, 『素問·調經論』의 “上焦에서 氣가 소통되지 못하여 衛氣가 새어 넘쳐날 수 없으니 故로 體外에서 熱이 납니다.”¹³⁷⁾를 인용, 體表

의 邪氣實로 衛氣가 소통되지 못하여 熱이 발생하는 病機를 설명하였다¹³⁸⁾. 이는 邪氣의 所在, 屬性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外의 君火, 相火를 뜻하는 것이다.

陰虛에 대해서는 『素問·調經論』, 李東垣, 朱丹溪의 學說을 통해 다시 陽虛, 陰虛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素問·調經論』의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陰이 虛하여 體內에서 熱이 남은 어떠합니까? 岐伯이 말하기를 수고하고 게을러서 形氣가 쇠약해지고 穀氣가 豐盛하지 못하면 上焦에서 氣가 운행되지 못하고 下腕이 통하지 못하여 胃氣가 熱로 바뀌고, 熱이 胸中을 熏蒸하니 故로 體內에서 熱이 납니다.”¹³⁹⁾와 東垣의 『內外傷辨惑論』¹⁴⁰⁾을 인용 “發熱, 惡熱하고 大渴이 그치지 않으며, 煩躁하고 肌熱이 발생하여 옷을 입으려 하지 않고, 脈이 洪大하지만 按하여 無力하고 간혹 目痛, 鼻乾이 없는 경우는 白虎湯의 證狀이 아니다. 血虛하여 發躁한 것이니 當歸補血湯으로 다스려야 한다.”¹⁴¹⁾라고 하여 脾胃의 虛損으로 인해 발생하는 內熱을 설명하였다.

또 丹溪의 『格致餘論』¹⁴²⁾을 인용 “『內經』에서 陰이 虛하면 熱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陽은 外에서 陰을 護衛하고, 陰은 內에서 陽을 지키는 것이다. 精神이 外物을 쫓아 흩어지고 嗜欲이 절제되지 않으면, 陰氣가 耗損되고 흩어지게 된다. 陽이 붙어있을 곳이 없으므로, 肌表의 사이로 떠올라 흩어져 惡熱이 발생하게 되지만, 實熱이 아니다. 陰虛로 보고 다스려야 하니, 補養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¹⁴³⁾고 하였다.

132)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23.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 陽勝則熱 陰勝則寒 重寒則熱 重熱則寒 寒傷形 熱傷氣 氣傷痛 形傷腫”
 133)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65. “陽勝則熱”
 134)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130. “陽盛則外熱 陰虛則內熱 外內皆熱則喘而渴故欲冷飲也”
 135)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65.
 136) 朴贊國 譯注. 黃帝內經素問注釋. 과주. 集文堂. 2005. p. 121. “陽勝則身熱 腠理閉 喘麤爲之俛仰 汗不出而熱 齒乾以煩冤腹滿 死 能冬不能夏”
 137) 朴贊國 譯注. 黃帝內經素問注釋. 과주. 集文堂. 2005. pp. 987-988. “帝曰 陽盛生外熱 奈何 岐伯曰 上焦不通利 則皮膚緻密 腠理閉塞 玄府不通 衛氣不得泄越 故外熱”

138)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p. 65-67.
 139) 朴贊國 譯注. 黃帝內經素問注釋. 과주. 集文堂. 2005. pp. 987-988.
 140) 李東垣 原著. 丁光迪 外 編校. 東垣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當歸補血湯 治肌熱 燥熱 因渴引飲 目赤面紅 晝夜不息 其脈洪大而虛 重按全無 內經曰 脈虛 血虛 又云 血虛發熱 證象白虎 惟脈不長實 有辨耳 悞服白虎湯 必死”
 141)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東垣曰 發熱惡寒 大渴不止 煩躁肌熱 不欲近衣 其脈洪大 按之無力者 或無目痛 鼻乾者 非白虎湯證也 此血虛發躁 當歸補血湯主之”
 142) 朱丹溪. 丹溪醫集·格致餘論·惡寒非寒病惡熱非熱病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33.
 143)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70. “經曰 陰虛則發熱 夫陽在外爲陰之衛 陰在內爲陽之守 精神外馳 嗜欲無節 陰氣耗散 陽無所附 遂致浮散於肌表之間 而惡熱

『素問·調經論』과 東垣의 학설은 脾胃의 虛損으로 인한 內熱의 병기를 설명하는 것이다. 특히 東垣은 脾胃의 陽氣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丹溪는 陰氣의 耗損으로 인한 內熱의 병기를 설명하고 있다. 孫一奎는 內傷의 病機를 陰虛로 총괄하고 이를 다시 陽虛, 陰虛로 구분한 것이다. 또 東垣과 丹溪가 충분히 밝히지 못한 下元陽虛의 火熱病機를 啓發하여, 內傷虛證의 火熱病機를 더욱 정밀하게 하였다. 이는 正氣의 虛實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內의 君火, 相火 특히 內傷虛證의 火熱病機인 內相火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孫一奎는 火熱病機에 대해 일차적으로는 陽勝으로 총괄하고, 이를 다시 陽盛과 陰虛로 구분하였다. 陽盛은 表, 邪氣實의 病機를 중심으로, 陰虛는 裏, 正氣虛의 病機를 위주로 설명하는 것이므로, 각기 外의 君火, 相火와 內의 君火, 相火의 특징적 병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 內傷虛證을 의미하는 陰虛를 다시 陽虛, 陰虛로 체계적 구분을 가하였으며, 陽虛를 脾胃와 下元의 문제로 구분하여 內傷虛證의 火熱病機를 더욱 정밀하게 하였다. 이는 기존의 學說 및 자신이 밝혀낸 내용을 통해, 火熱病機에 대해 統合的, 體系의인 구분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2-4 小結

孫一奎는 火熱病機의 體系的, 統合的 인식과 치료를 위해, 熱의 發生을 發病經路와 正氣의 虛實을 중심으로, 外의經路의 君火, 相火와 內의經路의 君火, 相火로 나누었다. 外의經路의 君火, 相火에 대해서는 邪氣의 屬性과 所在를 중심으로 살피되, 正氣의 虛實을 함께 인식하였다. 內의經路의 君火, 相火에 대해서는 正氣의 虛實을 중심으로 살피되, 邪氣의 所在와 屬性을 함께 인식하였다. 즉 ‘內·外, 君火·相火’의 의미는 火熱의 發生에 대해 正氣의 虛實과 邪氣의 所在, 屬性의 구분을 핵심으로 함으로서, 결국 外, 內 별개의 君火와 相火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되었다. 正, 邪의 虛, 實에 의한 鬱에 의해 熱이 발생한다는 것은 孫一奎가 밝히고 있는 外, 內 君火, 相火의 주요 機轉의 하나이다. 邪氣의 所在

也 實非有熱 當作陰虛治之 而用補養之法可也”

와 屬性을 중심으로 하는 外의 病機는 ‘邪氣實 → 鬱 → 化熱’, 正氣의 虛와 陰陽 屬性을 중심으로 하는 內의 病機는 ‘正氣虛 → 鬱 → 化熱’으로 그 機轉을 설명할 수 있다. 또 火熱病機를 陽勝으로 총괄하고, 이를 外內의 發病 所在 및 正邪의 虛實을 통해 陰陽으로 구분하여 統合的, 體系的 인식의 방법을 시도하였다. 특히 內相火를 陽虛, 陰虛로 구분함으로써 李東垣, 朱丹溪가 밝힌 內傷火熱病機를 정밀하게 하였다. 脾胃陽虛에 한정되었던 陽虛火熱病機에 대해서, 下元陽虛의 病機를 계발함으로써 內傷陽虛 火熱病機의 치료에 새로운 認識과 治法을 밝혔다. 또 朱丹溪의 肝腎陰虛 火熱病機와도 같은 부위의 서로 다른 陰陽 屬性으로 병기를 설명할 수 있게 됨으로써, 下部의 陰虛뿐 아니라 陽虛의 火熱病機에까지 인식의 폭을 확대시켰다.

3. 李東垣, 朱丹溪의 學說과 比較

3-1 李東垣의 學說과 比較

李東垣은 眞氣, 元氣에 대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精氣라고 하였다¹⁴⁴. 또 心之神을 眞氣의 별칭이라 하였다¹⁴⁵. 그리고 眞氣, 元氣, 心之神은 모두 脾胃를 통한 水穀之氣의 자양을 통해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하였다¹⁴⁶. 즉 李東垣은 眞氣, 先天의 개념을 사용하면서도, 脾胃를 통해 水穀之氣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眞氣가 유지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太極論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易에서 말하기를 兩儀가 四象을 생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天地의 氣交를 뜻하는 것으로 八卦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치가 사람에게 있어서는 淸濁之氣의 分化로

144) 李東垣 原著. 丁光迪 外 編校. 東垣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102. “眞氣又名元氣 乃先身生之精氣也 非胃氣不能滋之”

145) 李東垣 原著. 丁光迪 外 編校. 東垣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98. “心之神 眞氣之別名也”

146) 李東垣 原著. 丁光迪 外 編校. 東垣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17. “所著內經悉言 人以胃氣爲本 蓋人受水穀之氣以生”.

나타나게 되며, 이는 모두 脾胃로 부터 營氣가 出하여 온몸을 營養하여 이루어진다. 곧 水穀의 氣味가 化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¹⁴⁷⁾”

이는 ‘太極 → 兩儀 → 四象’의 분화 과정 중, ‘兩儀 → 四象’에 대해 말한 것으로, 土가 다른 네 가지 기운을 모두 길러내는 역할로 구분되고 있다. 즉 李東垣은 인체의 발생 과정에서 脾胃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또 陽氣에 대해, 天에 있어서도 청정함을 귀하게 여기듯, 사람의 陽氣도 煩勞하지 않게 잘 보존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⁴⁸⁾. 『素問 · 五常政大論』의 “陰精所奉 其人壽, 陽精所降 其人夭”를 인용, 脾胃가 調和로 위야 穀氣가 上升하여 春夏의 습이 행하여지며, 그렇지 않으면 穀氣가 下流하여 春夏의 습이 행하여 지지 못한다고 하였다¹⁴⁹⁾. 이러한 관점에서 『素問 · 經脈別論』의 내용을 통해 비위의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內經』에서 … 飲食이 胃에 들어오면 먼저 陽道가 行하여 저서 陽氣가 升浮하게 된다고 하였다. 浮는 陽氣가 皮毛에 흠어져 채우는 것이며, 升은 頭頂을 채우며 九竅를 通利하게 하는 것이다.¹⁵⁰⁾”

즉 東垣은 인체의 陽氣, 生發之氣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러한 陽氣를 보존하는 관건은 脾胃를 통한 水穀之氣의 上升에 달려 있다고 본 것이다.

147) 李東垣 原著. 丁光迪 外 編校. 東垣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108. “易曰 兩儀生四象 乃天地氣交八卦是也 在人則清濁之氣 皆從脾胃出榮氣 營養於身 乃水穀之氣味化之也”

148) 李東垣 原著. 丁光迪 外 編校. 東垣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p. 58-59. “生氣通天論云 蒼天之氣 清淨則志意治 順之則陽氣固 雖有賊邪弗能害也 此因時之序. 故聖人 傳精神 服天氣 而通神明. … 故蒼天之氣 貴清淨 陽氣惡煩勞 病從脾胃生者 一也.”

149) 李東垣 原著. 丁光迪 外 編校. 東垣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59. “陰精所奉 謂脾胃既和 穀氣上升 春夏令行 故其人壽. 陽精所降 謂脾胃不和 穀氣下流 收藏令行 故其人夭.”

150) 李東垣 原著. 丁光迪 外 編校. 東垣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65. “經云 … 且飲食入胃 先行陽道而陽氣升浮也 浮者陽氣散滿皮毛 升者充塞頭頂則九竅通利也”

생리적 火에 대해, 心을 君火로, 包絡을 相火로 인식하였다.¹⁵¹⁾ 心, 君火는 神을 주관하며 고요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며, 少陽과 表裏를 이루며 君火의 명령을 대신 행하게 된다고 보았다.¹⁵²⁾ 心과 包絡은 모두 血을 주관하는데¹⁵³⁾, 血이 부족해지면 火가 발생하며,¹⁵⁴⁾ 相火가 君火를 대신하여 火를 일으키게 된다고 하였다¹⁵⁵⁾. 이는 君火, 相火의 관계에 대해 李東垣도 孫一奎와 같이 君臣의 관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東垣은 血이 脾胃로부터 자양되는 것을 강조하여, 火의 발생 원인으로 脾胃의 문제를 가장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火熱의 발생에 대해 “元氣가 行하지 못하면, 氣가 化하여 火가 된다.”¹⁵⁶⁾고 하여 ‘元氣不行 → 化熱’의 기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元氣不行의 원인으로, 正氣虛인 元氣不足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元氣虛實의 관건으로서 脾胃를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飲食이 節度에 맞지 않거나, 寒溫이 적절하지 않으면 脾胃가 傷한다. 또 喜, 怒, 憂, 恐 등 七情의 지나침과 過度한 勞役은 元氣를 耗損시킨다. 이미 脾胃가 虛衰한 상태에서 元氣가 不足해지므로 心火가 獨盛하게 된다.¹⁵⁷⁾”

151) 李東垣 原著. 丁光迪 外 編校. 東垣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212. “心與包絡者 君火相火也 得血則安 亡血則危”

152) 李東垣 原著. 丁光迪 外 編校. 東垣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171. “心者 君火也 主人之神 宜靜而安 相火 代行其令 相火者 包絡也” “凡心包絡之脈 出於心中 以代心君之行事也 與少陽 爲表裏”

153) 李東垣 原著. 丁光迪 外 編校. 東垣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p. 18-19. “心包與心主血 血減則心無所養 致使心亂而煩 名曰病憊”

154) 李東垣 原著. 丁光迪 外 編校. 東垣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212. “心與包絡者 君火相火也 得血則安 亡血則危 火上熾 故令人昏冒”

155) 李東垣 原著. 丁光迪 外 編校. 東垣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178. “治血弱陰虛不能養心 致心火旺陽火甚 瞳子散大 少陰爲火 君主無爲 不行其令 相火代之 兼心包絡之脈 出心系 分爲三道 少陽相火之體無形 其用在其中矣”

156) 李東垣 原著. 丁光迪 外 編校. 東垣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109. “四時節候 變更之異氣 及飲食失節 妄作勞役 心生好惡 皆令元氣不行 氣化爲火”

157) 李東垣 原著. 丁光迪 外 編校. 東垣醫集. 北京. 人民衛生

즉 脾胃의 손상으로 元氣를 자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七情, 勞倦 등으로 元氣가 손상되므로 元氣不足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병리적인 火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脾胃의 虛損을 중심으로 하는 內傷虛證 火熱病機를 제시한 것이다. 이때 五藏의 盛衰 등에 따라 心, 腎, 肝, 肺¹⁵⁸⁾ 등 타 장부에서 火가 발생하게 됨을 밝히고 있다. 가령 『脾胃論·脾胃虛實傳變論』에서 인용한 『素問·調經論』의 “수고하고 게을러서 形氣가 쇠약해지고 穀氣가 豐盛하지 못하면, 上焦에서 氣가 운행되지 못하고 下脘이 통하지 못하여, 胃氣가 熱로 바뀌고 熱이 胸中을 熏蒸하니, 故로 體內에서 熱이 납니다.”¹⁵⁹⁾는 勞倦, 飲食의 문제로 인해 胃氣가 上, 下로 行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熱의 기전을 의미한다. 『脾胃論·卷中 安養心神調治脾胃論』에서는 元氣不足의 또 다른 요인인 怒, 悲, 思, 恐 등의 七情過極을 언급하며¹⁶⁰⁾, 이로부터 心君이 편하지 못하고 凝滯가 발생하여 火가 발생하는 ‘七情過極 → 心君不寧 → 心氣凝滯 → 化火’의 기전을 말하고 있다.¹⁶¹⁾ 이때 心의 凝滯를 예방하는 것은, 脾胃를 통해 血을 자양하여 神을 지키는 것이라 하여, 心火의 발생에 있어서도 脾胃의 문제를 강조하였다.¹⁶²⁾ 이는 七情의 過極으로 인한 心火의 발생에

서도, 脾胃虛損을 중심으로 병기를 밝힌 것이다.

『脾胃論·卷中 長夏濕熱胃困尤甚用清暑益氣湯論』에서는 『素問·痿論』의 痿證 病機에 대해, 脾胃가 虛損된 상태에서 暑邪를 감한 것이라 하였다.¹⁶³⁾ 飲食, 勞倦 등으로 脾胃가 虛弱해지면 陽氣가 上升하지 못하게 된다. 이때 暑의 濕熱과 遠行은 腎이 弱해지기 쉬운 조건을 형성하게 되므로, 脾胃의 虛損으로 발생한 下焦 衝脈의 火와¹⁶⁴⁾, 暑의 濕熱이 腎에 머물러 骨髓를 虛하게 되는 것이다.¹⁶⁵⁾

즉 東垣은 生命活動에 있어 脾胃를 통한 陽氣의 상승을 강조하였으며, 脾胃의 虛損으로 비롯된 ‘元氣不足 → 不行 → 化火’의 火熱病機를 제시하였다. 心, 心包를 君火, 相火로 인식하면서도, 脾胃의 문제가 병리적 火 발생의 주된 요인으로 보았다. 그리고 時令, 攝生, 七情, 勞倦 등으로 인한, 藏府의 盛衰에 따라, 心, 腎 등 다른 藏府에서 火熱病이 발생 할 수 있음을 밝혔다. 즉 脾胃虛損을 火熱病機의 주된 요인으로 인식하면서, 藏府의 虛實에 따라 發病의 所在와 樣相이 결정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治法은 脾胃의 虛損을 중심으로, 타 藏府의 虛實과 火의 程度를 살필 것을 강조하였다. 『素問·至真要大論』의 “勞者溫之, 損者溫之”¹⁶⁶⁾를 인용, 黃芪, 人參, 甘草 등 甘溫之劑로 補中, 升陽을 위주로 하며, 生甘草 등의 甘寒之劑로 瀉火하고, 柴胡, 升麻 등 苦平, 味薄之劑로 藥力을 上升시켜 下陷된 清氣를 上升시키는 것을 治法大綱으로 삼았다.¹⁶⁷⁾ 만일 七情 등으로 血虛가 발생

出版社. 2000. p. 80. “苟飲食失節 寒溫不適 則脾胃乃傷 喜怒哀恐 勞役過度 而損耗元氣 既脾胃虛衰 元氣不足 而心火獨盛”

158) 李東垣 原著. 丁光迪 外 編校. 東垣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p. 63-65. “至而不至者 謂從後來者 爲虛邪 心與小腸來乘脾胃也 …”, “所不勝乘之者 水乘木之妄行 而反來侮土 …”, “所勝妄行者 言心火旺 能令母實 母者 肝木也 肝木旺則 挾火勢 無所畏懼而妄行也 故脾胃先受之”, “所生受病者 言肺受土木之邪而清肅之氣傷”

159) 朴贊國 譯注. 黃帝內經素問注釋. 과주. 集文堂. 2005. pp. 987-988.

160) 李東垣 原著. 丁光迪 外 編校. 東垣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98. “凡怒忿悲思恐懼, 皆損元氣.”

161) 李東垣 原著. 丁光迪 外 編校. 東垣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98 “夫陰火之熾盛 由心生凝滯 七情不安故也. 心脈者 神之舍. 心君不寧 化而爲火. 火者 七神之賊也. 故曰陰火太盛 經營之氣 不能順養於神 乃脈病也. 神無所養 津液不行 不能生血脈也.”

162) 李東垣 原著. 丁光迪 外 編校. 東垣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98 “善治斯疾者 惟在調化脾胃 使心無凝滯.”

163) 李東垣 原著. 丁光迪 外 編校. 東垣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p. 90-91 “痿論云 有所遠行勞倦 逢大熱而渴 渴則陽氣內伐 內伐則熱舍於腎. 腎者 水臟也. 今水不能勝火 則骨枯而髓虛 足不任身 發爲骨痿.”, “此病皆由飲食勞倦 損其脾胃 乘天暑而病作也”

164) 李東垣 原著. 丁光迪 外 編校. 東垣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8. “適飲食不節 勞役所傷 濕從下受之 謂脾胃之氣不足 而反下行極 則衝脈之火逆而上”

165) 李東垣 原著. 丁光迪 外 編校. 東垣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p. 64-65. “所不勝乘之者 水乘木之妄行 而反來侮土 … 一設 下元土盛剋水 致督任衝三脈盛 火旺煎熬 令水沸騰而乘脾肺”

166)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素問·至真要大論.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167) 李東垣 原著. 丁光迪 外 編校. 東垣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18. “惟當以甘溫之劑 補其中 升其陽, 甘寒

하여 心煩 등의 증상이 발생하더라도 “陽生陰長”을 원칙으로 辛甘微溫之劑를 사용하되, 血虛와 火邪의 정도에 따라 當歸, 黃芩, 生地黃, 硃砂 등을 사용하였다.¹⁶⁸⁾ 濕의 濕熱이 下流하여 水가 衰하는 경우에는 甘溫之劑를 위주로 하되, 豬苓, 茯苓 등 滲泄之劑와 葛根 등으로 時令의 濕熱을, 黃芩 등으로 腎의 熱을 다스리고, 麥門冬, 五味子 등 酸甘微寒之劑로 金을 돕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治法에서도 “甘溫補益”을 중심으로, 타 藏府의 虛實과 邪氣의 정도에 따라 甘寒, 苦平, 辛寒, 滲濕之劑를 사용한 것이다.

李東垣은 眞氣에 대해 脾胃로 부터의 자양을 받아 유지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孫一奎는 脾胃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命門은 五行의 한 가지 속성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하였다. 李東垣, 孫一奎는 모두 生命活動의 가장 높은 차원인 神을 담당하는 心을 君火로 인식하였다. 東垣은 心包를 相火로 인식하고, 心을 대신하여 君令을 행하는 君臣의 관계로 인식하였고, 三焦는 包絡과 표리를 이루며 상화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孫一奎는 心包, 三焦가 각각 血, 氣를 주관하며 表리를 이루어 모두 相火에 해당하고, 膻中, 氣海, 宗氣 등도 유관한 개념으로 인식하였다. 火熱病의 발생에 대해 東垣은 脾胃虛損을 중심으로 한 內傷虛證의 火熱病機, 즉 ‘脾胃虛損 → 元氣不足 → 元氣不行 → 氣化爲熱’의 기전을 밝혔다. 孫一奎는 東垣이 밝힌 내용을 內傷虛證 火熱病機 중 陽虛로 인식하고, 下元陽虛의 火熱病機를 추가적으로 밝혀 內傷陽虛 火熱病機를 더욱 정밀히 하였다. 또 陽虛, 陰虛의 內傷火熱病機를 內相火에 포함시켜 內傷火熱病機에 대해 통합적, 체계적 인식을 시도하였다. 治法에 대해 東垣은 脾胃의 補益을 중심으로, 藏府의 虛實, 邪氣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瀉火, 利濕, 滋金水 등의 치법을 가감 사용하였다. 孫一奎는 下元陽虛에

以瀉其火 則愈. 內經曰 勞者溫之. 損者溫之. 蓋溫能除大熱, 大忌苦寒之藥, 瀉胃土耳. 今立補中益氣湯.”

168) 李東垣 原著. 丁光迪 外 編校. 東垣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p. 18. “血虛 以人蔘補之 陽旺則能生陰血 更以當歸和之 少加黃蘗 以救腎水 能瀉陰中之伏火. 如煩猶不止 少加生地黃 補腎水 水旺而心火自降. 如氣浮心亂 以硃砂安神丸 鎮固之 則愈”

대해 溫補下元의 치법을 啓發하였고, 正氣와 邪氣의 虛實 및 屬性에 따라 다스릴 것을 강조하였다.

3-2 朱丹溪의 學說과 比較

丹溪는 人體의 陰氣가 부족하기 쉬움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람은 天地의 氣로 生하여진다. 天의 陽氣는 사람에 있어서 氣가 되고, 地의 陰氣는 사람에 있어서 血이 된다. 그러므로 氣는 有餘함을 常으로하고, 血은 不足함을 常으로한다.¹⁶⁹⁾”

또 태어난 후 십수년 동안 後天의 滋養을 통해 陰氣를 길러야 비로소 ‘陰陽均平’의 상태가 되며¹⁷⁰⁾, 이는 정상생리상 30~40년 정도만 유지되고, 나이 40이 지나 陰氣는 차츰 반감되어 남녀 64, 49세가 되면 精絶, 經斷하여 陰氣가 쇠하게 된다고 하였다¹⁷¹⁾. 이러한 陰氣는 精情, 욕망 등으로 쉽게 손상되므로 “이루기는 어렵고, 모손되기는 쉽다.”라 하였다.¹⁷²⁾ 또 『素問·太陰陽明論』의 “陽道는 實하고, 陰道는 虛하다.”¹⁷³⁾와 『方盛衰論』의 “至陰이 虛하면 天氣가 끊어지고, 至陽이 盛하면 地氣가 부족하다.”¹⁷⁴⁾ 에 대해 陰

169) 朱丹溪 原著. 浙江省中醫藥研究院文獻研究室 編校.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10. “人受天地之氣以生 天之陽氣爲氣 地之陰氣爲血 故氣常有餘 血常不足”

170) 朱丹溪 原著. 浙江省中醫藥研究院文獻研究室 編校.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10. 梁光烈, 같은 논문, 41 제인용 “人身之陰氣 其消長視月之盈缺. 故人之生也 男子十六歲而精通 女子十四歲而經行. 是有形之後 猶有待於乳哺水穀以養 陰氣始成而可與陽氣爲配 以能成人 而爲人之父母.”

171) 朱丹溪 原著. 浙江省中醫藥研究院文獻研究室 編校.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10. “古人必近三二十而後嫁娶 可見陰氣之難於成 而古人之善於攝養也 … 內經曰 年至四十陰氣自半而起居衰矣. 又曰 男子六十四歲而精絶 女子四十九歲而經斷. 夫以陰氣之成 止供給得三十年之視聽言動 已先虧矣.”

172) 朱丹溪 原著. 浙江省中醫藥研究院文獻研究室 編校.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10. “人之情欲無涯 此難成易虧之陰氣 若之何而可以供給也”

173)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112. “陽者 天氣也 主外 陰者 地氣也 主內 故陽道實 陰道虛”

174)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321. “至陰虛 天氣絶 至陽盛 地氣不足”

은 虛로, 陽은 盛으로 변화하므로, ‘陽有餘陰不足論’의 근거가 된다고 보았다.¹⁷⁵⁾ 理學을 공부한 朱丹溪가¹⁷⁶⁾, 太極論의 理적 觀點을 논하지 않고, ‘陽有餘陰不足’이라 한 것에 대해 시대적 배경과 陰陽의 變化적 속성에 따른 차이를 밝힌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金知煥은 “丹溪의 ‘陽有餘陰不足’은 陰陽이 불균형한 상태에 있다고 본 것은 아니며, 陰과 陽의 차이에 대한 고찰의 결과이다. 陰은 부족해지는 방향으로 변하기 쉬움을 말하였으니, 이는 養生을 강조하는 계도적인 목적과 함께, 당시 燥熱한 약제를 과용하는 폐단에 일침을 하였다.”라고 하였다.¹⁷⁷⁾ 즉 당시 『和劑局方』의 영향으로 躁熱한 處方을 남용하던 풍조에 반대하여, 부족해지기 쉬운 陰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陽有餘陰不足論’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孫一奎는 命門을 ‘非水, 非火’라 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은 것으로 표현하였다. 朱丹溪는 陰不足을 강조하기 위해 下部에 相火가 존재한다고 하였으며, 孫一奎는 五行의 正配合를 지키며 相火는 上部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국한하고, 陰虛와 陽虛의 병기를 통합적으로 인식하였다.

相火의 所在 및 해당 藏府에 대해, 丹溪는 心包, 三焦 뿐 아니라 肝, 膽, 腎, 膀胱 등도 모두 相火로 인식하고¹⁷⁸⁾, 특히 肝, 腎의 下部에 相火가 존재함을 강조하였다.¹⁷⁹⁾ 이를 자연현상에서 용의 승천, 우레 침, 파도침으로 비유하여, 天의 相火가 木, 水에 속한다 보았다. 그러므로 人體에서도 木, 水에 해당하는 肝,

腎에 相火가 있다는 것이다.¹⁸⁰⁾ 相火의 속성에 대해서는 그 맹렬한 기세를 우레 침, 용의 승천, 파도 침으로 비유하고, 그 작용은 땅에 바탕을 둔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리로 肝, 腎의 陰部에 모두 相火가 존재한다고 하였다.¹⁸¹⁾ 즉 丹溪는 相火의 맹렬함을 天火에 비유하고, 所在를 下部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孫一奎는 五行의 正配合를 따라 생리적 君火, 相火의 所在를 모두 上部로 국한시켰다. 心包, 三焦가 血, 氣를 주관하며 서로 表裏를 이루어 전신을 循行하므로, 각 藏府의 系統의 虛, 實에 따른 氣血의 변화에 의해 火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天과 人에 모두 君火, 相火가 존재하므로, 君火를 人火, 相火를 天火로 본 丹溪의 學說은 적절치 않다고 하였다.¹⁸²⁾ 相火의 맹렬함을 나타내기 위해 天火로 비유한 것이지만, 이는 五志의 火를 뜻하는 것일 뿐, 모든 相火를 대변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¹⁸³⁾ 또 그 의미가 왜곡되어 오직 滋陰降火의 치법에만 의존하는 폐단이 발생하게 됨을 지적하였다.¹⁸⁴⁾

『格致餘論·相火論』에서는, 병리적 相火의 발생에 대해 周敦頤의 학설을 인용, 心이 주관하는 神이 知를 發하여 外物에 感하므로, 五性이 動하여 相火가 발생한다고 하였다.¹⁸⁵⁾ 下部의 相火는, 上으로 心에

175) 朱丹溪 原著. 浙江省中醫藥研究院文獻研究室 編校.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10. “觀虛與盛之所在, 非吾之過論.”

176) 朱熹의 四傳弟子인 白雲 許謙에게서 理學을 배운 朱丹溪를 유학자로 보는 견해도 있다. : 梁光烈. 朱丹溪의 陽有餘陰不足論에 관한 研究.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 67.

177) 金知煥. 朱丹溪의 黃帝內經 素問 理解에 관한 考察. 서울. 慶熙大學校 大學院. 2006. p. 146.

178) 朱丹溪 原著. 浙江省中醫藥研究院文獻研究室 編校.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 38-39. “具於人者寄於肝腎二部 肝屬木而腎屬水也 膽者肝之腑 膀胱者腎之腑 心包絡者腎之配 三焦以焦言 司肝腎之分 皆陰而下者也”, “肝腎之陰 悉具相火 人而同乎天也”

179) 朱丹溪 原著. 浙江省中醫藥研究院文獻研究室 編校.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10. “主閉藏者腎也 司疏泄者肝也 二臟皆有相火 而其系上屬於心”

180) 朱丹溪 原著. 浙江省中醫藥研究院文獻研究室 編校.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 38-39. “見於天者出於龍雷則木之氣 出於海則水之氣也 具於人者 寄於肝腎二部 肝屬木而腎屬水也 膽者肝之腑 膀胱者腎之腑 心包絡者腎之配 三焦以焦言 司肝腎之分 皆陰而下者也”

181) 朱丹溪 原著. 浙江省中醫藥研究院文獻研究室 編校.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39. “天之火 雖出於木而本乎地 故雷非伏 龍非蟄 海非附於地 則不能鳴 不能飛 不能波也 鳴也 飛也 波也 動而爲火者也 肝腎之陰 悉具相火 人而同乎天也”

182)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60. “且以丹溪之特識 乃分君火爲人火 相火爲天火 ... 愚竊以爲未然也. 夫火有天人 不可以君相而分屬天人”

183)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60. “又曰 雖其取譬 無非欲狀相火之烈. 然但可以論五臟厥陽之火 而非君相.”

184)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61. “諸書又妄以命門爲相火 而主方即以滋陰降火湯爲專劑. 以故今之治虛怯者 未數月而多至殞促.”

185) 朱丹溪 原著. 浙江省中醫藥研究院文獻研究室 編校.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39. “周子曰 神發知

이어져 있으므로,¹⁸⁶⁾ 上部의 心, 君火가 먼저 動하면, 下部에서 相火가 動하게 된다는 것이다.¹⁸⁷⁾ 그리고 相火의 妄動은 眞陰을 모손시키고 陰虛, 陰絶을 유발한다 하였다.¹⁸⁸⁾ 그러므로 相火의 妄動과 眞陰의 虧損을 막기 위해서는 主靜¹⁸⁹⁾, 收心養心¹⁹⁰⁾ 등으로 내면의 욕망을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다. 陰氣는 脾胃를 통해 藥과 飲食으로 보충해야 하지만, 眞陰은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¹⁹¹⁾ 內, 外的 소인에 의한 妄動을 피하여 모손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¹⁹²⁾ 즉, 丹溪는 相火의 所在를 下部로 인식하여 ‘이루기 어렵고, 모손되기 쉬운(難成易虧)陰의 보전에 대해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孫一奎는 相火가 上部에 존재하지만, 包絡은 心으로부터 上, 下로 肺, 腎을 연락하며, 三焦는 上, 中, 下에 걸쳐서 脈內, 脈外 등 臟腑의 기능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작용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五藏으로부터 氣의 虛損이나 鬱滯가 發生할 경우, 心包,

三焦의 氣血 변화를 통해 五藏의 系統에 火가 發生할 수 있다는 것이다. 內傷의 경우에는 氣의 虛損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正氣가 虛한 상태에 發生하는 것을 內相火로 보았다. 또 火邪의 속성이 心의 계통으로 옮겨져 더욱 깊은 상태에 이른 것을 君火로 인식하였다.

朱丹溪는 耗損되기 쉬운 陰의 병리적 특징, 『和劑局方』의 폐해 그리고 養生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相火의 존재를 肝腎의 陰位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⁹³⁾ 相火의 맹렬한 성질을 강조하는 것도, 회복할 수 없는 眞陰의 모손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格致餘論·惡寒非寒病惡熱非熱病論』에서는 李東垣이 脾胃의 虛損을 중심으로 밝힌 『素問·調經論』¹⁹⁴⁾의 “陰虛則內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內經』에서 陰이 虛하면 熱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陽은 外에서 陰을 護衛하고, 陰은 內에서 陽을 지키는 것이다. 精神이 外物을 쫓아 흩어지고 嗜欲이 절제되지 않으면, 陰氣가 耗損되고 흩어지게 된다. 陽이 붙어있을 곳이 없어지면, 肌表의 사이로 떠올라 흩어져 惡熱이 발생하게 되지만, 實熱이 아니다. 陰虛로 보고 다스려야 하니, 補養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¹⁹⁵⁾

이는 外物에 이끌려 火가 動하게 되면, 陰을 모손시키므로 陽이 浮越하여 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矣 五性感物而萬事出 有知之後 五者之性 爲物所感 不能不動 謂之動者 卽內經五火也相火易起 五性厥陽之火 上扇則妄動矣”

186) 朱丹溪 原著. 浙江省中醫藥研究院文獻研究室 編校.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39. “主閉藏者腎也 司疏泄者肝也 二臟皆有相火 而其系上屬於心”

187) 朱丹溪 原著. 浙江省中醫藥研究院文獻研究室 編校.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10. “心 君火也 爲物所感則易動 心動則相火亦動 動則精自走”

188) 朱丹溪 原著. 浙江省中醫藥研究院文獻研究室 編校.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39. “火起於妄 變化莫測 無時不有 煎熬眞陰 陰虛則病 陰絶則死”

189) 朱丹溪 原著. 浙江省中醫藥研究院文獻研究室 編校.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39. “周子又曰 聖人定之 以中正仁義而主靜”

190) 朱丹溪 原著. 浙江省中醫藥研究院文獻研究室 編校.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10. “所以聖賢 只是教人收心養心 其旨深也”

191) 梁光烈. 朱丹溪의 陽有餘陰不足論에 관한 研究. 서울. 慶熙大學校 大學院. 2001. p. 67. “이러한 陰氣는 脾胃를 통해 水穀의 陰氣를 취함으로써 그 不足함을 보충할 수 있으며 ... 하지만 腎精은 약으로서 보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오직 內外가 모두 高요하여야 비로소 생긴다고 하였다.”

192) 朱丹溪 原著. 浙江省中醫藥研究院文獻研究室 編校.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57. 梁光烈, 같은 논문, 43 재인용. “夫血 陰氣也 陰主靜 內外兩靜則臟腑之火不起 而金水二氣 有養 陰血自生”

193) 金知煥. 朱丹溪의 黃帝內經 素問 理解에 관한 考察. 서울. 慶熙大學校 大學院. 2006. p. 146.

194) 調經論에서는 인체 내의 正氣를 내외의 陰陽二氣로 나누어, 외부는 더운 성질의 陽氣로, 내부는 찬 성질의 陰氣로 이루어져 있어, 외부의 陽氣가 虛하면 溫하지 못하여 外寒하고 盛하면 外熱하며, 내부의 陰氣가 虛하면 涼하지 못하므로 內熱하고 盛하면 內寒하는 것으로 나누어 각각의 기전을 설명하고 있다. : 金知煥. 朱丹溪의 黃帝內經 素問 理解에 관한 考察. 서울. 慶熙大學校 大學院. 2006. p. 104.

195) 朱丹溪 原著. 浙江省中醫藥研究院文獻研究室 編校.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33. “經曰, 陰虛則發熱, 夫陽在外, 爲陰之衛, 陰在內, 爲陽之守. 精神外馳, 嗜慾無節, 陰氣耗散, 陽無所附, 遂致浮散於肌表之間, 而惡熱也. 實非有熱, 當作陰虛, 治之而用補養之法, 可也.”

相火의 妄動에 의해 陰虛가 발생하고, 이로부터 火熱病機가 발생되는 ‘相火妄動 → 陰虛 → 生熱’의 기전을 밝힌 것이다. 『局方發揮』에서는 陰虛로 인한 火熱病機를 氣의 升降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一身을 두루 흘러 生하게 하는 것이 氣이다. 陽이 가면 陰이 오고 陰이 가면 陽이 오니, 一升, 一降이 다하고 그침이 없다. ... 氣가 炎上하는 변화를 얻어 升하기만 하고 降하지 않아서, 淸道를 熏蒸하고 甚하면 上焦不納, 中焦不化, 下焦不滲에 이르러 병이 더욱 발전하고 傳變하여 嘔, 吐, 膈, 噎, 痰, 飲, 翻胃, 吞酸 등이 된다.”¹⁹⁶⁾

陰虛로 인해 氣가 升하기만 하고 降하지 못하므로 上, 中, 下에서 不納, 不化, 不滲하여 병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陽盛陰虛”로 인해 氣가 ‘상승하기만 하고, 하강하지 않아(有升無降)’血의 문제를 동반하여 口鼻出血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였다.¹⁹⁷⁾ 즉 ‘陰虛’로 인한 氣의 변화를 통해 火熱病機를 설명한 것이다.

孫一奎는 철저히 五行 正配合의 원칙을 지키며, ‘心屬火居上, 腎屬水居下’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¹⁹⁸⁾ 相火는 전신에 걸쳐 작용을 하지만, 君을 보좌하고 命을 수행하므로 心과 가까운 上部에 위치한다고 보았다. 다만, 正氣, 邪氣의 虛, 實에 따라 鬱이 발생한 곳에 氣, 血의 변화에 의해 相火가 발생하고, 심한 경우 君火의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므로, 五藏의

五行 配屬을 지키면서도, 全身의 五藏 系統에 火熱病機가 발생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다. 또 『素問·調經論』의 “陰虛則內熱”을 內傷虛證 火熱病機로 보고, 李東垣과 朱丹溪의 脾胃虛損, 肝腎陰虛의 병기를 陽虛, 陰虛로 구분하여 內相火에 포함시켰다. 또 丹溪가 肝腎 下部의 陰虛병기를 강조한 것에 비해, 같은 부위의 다른 속성인 下元陽虛의 火熱病機를 추가적으로 밝혀, 內傷虛證 火熱病機를 더욱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구분하였다.

朱丹溪는 火熱의 治法에 대해 正氣의 虛實과 邪氣의 屬性을 고려해야 함을 말하였다. 正氣의 虛實에 대해서 “實火는 黃連解毒湯 등으로 瀉하고, 虛火는 補하는 것이 옳다¹⁹⁹⁾.”라고 하여 諸火證에 대해 虛實을 구분해야 한다는 충고를 설정하였으며, 陰虛의 火熱病機에 대해서는 火를 직접 사하지 않고, 補陰으로 자연히 화를 내릴 수 있다고 하였다²⁰⁰⁾. 또 脾胃 濕熱의 病機로 인식한 腹脹²⁰¹⁾에 대해서는 氣虛와 血虛를 구분하여 다스릴 것을 주장하였다²⁰²⁾. 곧 丹溪는 火에 대해 苦寒의 약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虛實과 胃氣의 상태를 고려하여 다스렸던 것이다.²⁰³⁾ 火

196) 朱丹溪 原著. 浙江省中醫藥研究院文獻研究室 編校.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52. “夫周流於人之一身 以爲生者 氣也 陽往則陰來 陰往則陽來 一升一降 無有窮已. ... 氣得炎上之化 有升無降 熏蒸淸道 甚而至於上焦不納 中焦不化 下焦不滲 展轉傳變 爲嘔爲吐 爲膈爲噎 爲痰爲飲 爲翻胃 爲吞酸.”

197) 朱丹溪 原著. 浙江省中醫藥研究院文獻研究室 編校.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48. “夫口鼻出血 皆是陽盛陰虛 有升無降 血隨氣上 越出上竅”. p. 268 “吐血 陽盛陰虛 故血不得下行 因火炎上之勢而上出 脈必大而芤 大者發熱 芤者血滯與失血也”. p. 272. “嘔血 火載血上 錯經妄行”

198)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p. 1197. “午位居上 故火旺於午 在人以心應之 故心居上. 子位居下 水旺於子 在人以腎應之 故腎居下.”

199) 朱丹溪 原著. 浙江省中醫藥研究院文獻研究室 編校.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218. “實火可瀉 黃連解毒之類 虛火可補”

200) 朱丹溪 原著. 浙江省中醫藥研究院文獻研究室 編校.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218. “有補陰即火自降 炒黃柏 生地黃之類”

201) 朱丹溪 原著. 浙江省中醫藥研究院文獻研究室 編校.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307. “脾土之陰受傷 轉運之官失職 胃雖受穀不能運化 故陽自升 陰自降 而成天地不交之否 淸濁相混 隧道壅塞 鬱而爲熱 熱留爲濕 濕熱相生 遂成脹滿 經口鼓脹是也”

202) 朱丹溪 原著. 浙江省中醫藥研究院文獻研究室 編校.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 307-310. “鼓脹又名單鼓脹 宜大補中氣行濕 此乃脾虛之甚 ... 大劑人參白朮 佐以 陳皮茯苓蒼朮之類 有血虛者用四物湯行血藥 ... 如白人腹脹者 是氣虛 宜參朮 厚朴陳皮”

203) 金知煥. 朱丹溪의 黃帝內經 素問 理解에 관한 考察. 서울. 慶熙大學校 大學院. 2006. p. 147. “丹溪는 치료 시 胃氣가 손상될 수 있는 攻法이나 峻劑의 사용을 加급적 제한하였다. 胃氣란 水穀之氣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人체 기혈의 성쇠는 胃氣로부터 비롯된다고 하였다. 즉, 胃氣를 人체 精氣의 중심으로 보았기에 비록 病邪를 다스리는 약이라고 하더라도 胃氣가 손상된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邪의 屬性에 따라서는 政治, 兼瀉兼緩, 寒涼兼溫散, 從治 등의 방법을 운용하였다. “輕한 것은 내릴 수 있고, 重한 것은 그 성질을 따라서 升하게 해야 한다²⁰⁴.”라고 하여 火의 輕重에 따른 治법의 區分을 가하였으며, “火의 證세가 急하고 매우 重한 것은 반드시 緩之해야 한다. 生甘草를 사용하여 瀉와 緩을 兼하며 人參과 白朮도 사용할 수 있다.²⁰⁵”라고 하여 兼瀉兼緩의 治법을 제시하였다. 또 “火가 盛하다면 급하게 淸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溫散의 방법을 謹해야 한다²⁰⁶.”라고 하여 寒涼兼溫散의 治법을 제시하였으며, “發散 시킬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있다. 風寒이 外에서 들어온 것과 火가 內에서 鬱한 것은 發散시킬 수 있다. 火가 鬱한 것은 鬱滯가 생긴 經을 따라 發散시켜야 한다.²⁰⁷”라고 하여 鬱火에 대한 治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火의 輕重, 鬱 등의 속성과, 陰中之火 등의 소제를 파악하여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사기가 실한 경우에도 평소 氣의 虛實을 함께 고려하여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정기의 허실과 사기의 속성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²⁰⁸. 그리고 眞陰이 크게 虧損된 상태는 약으로 다스리기 어렵다고 하였는데²⁰⁹, 이는 앞서 陰의 보존을 중시여기는 그의 인체관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丹溪는 陰의 보존을 중시 여기고, 陰虛의 病機를 중요시 하였지만 中氣의 상태와

火邪의 속성에 따라 治法의 원칙을 설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孫一奎의 內外君相論은 正氣의 虛實과 邪氣의 所在, 屬性을 파악하여 火熱病을 다스린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丹溪의 學說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孫一奎는 正氣의 虛實 區分에 있어서 “陰虛生內熱”의 의미에 대해 丹溪가 중요시하고 있는 ‘陰虛發熱’외에 ‘陽虛發熱’의 機轉을 제시하였다. 이는 東垣이 밝힌 ‘陽虛發熱’의 病機와 中焦, 下焦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內相火에 해당하는 內傷火熱病機를 더욱 정밀히 한 것이다. 이러한 君火相火에 대한 孫一奎의 인식은, 결국 火熱의 病機에 대해서도 正氣의 虛實과 邪氣의 屬性 및 所在를 고려하여 다스리는 治法으로 이어지게 된다. 즉 ‘內外君相論’의 일차적 의미는 火熱病에 대해 發病의 內外區分과 정기의 虛實 鑑別을 통해 外君火, 外相火, 內君火, 內相火의 네 가지로 區分하는 것에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正氣의 虛實과 火邪의 所在 및 屬性을 파악한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다.

朱丹溪는 ‘이루기 어렵고, 모손되기 쉬운’陰의 특성을 강조하며 眞陰의 보존을 중시하였다. 心이 君火에 해당하며, 心包, 三焦 뿐 아니라 肝, 膽, 腎, 膀胱 등도 相火에 해당하며 생리, 병리를 담당한다고 보았다. 특히 肝, 腎의 하부에 相火가 존재하여, 相火妄動에 의해 陰血을 모손시키는 병리를 강조하였다. 孫一奎는 動氣, 命門은 太極에 해당하는 개념이므로 水, 火로 규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三焦, 心包는 氣血을 주관하고 表裏를 이루며, 心을 가까이서 보호하고 君命을 대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 上部의 膈中, 氣海, 宗氣 등도 相火와 有關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朱丹溪는 外物에 의해 君火가 먼저 일어나면, 相火가 妄動하여 陰虛를 유발한다고 보았다. 陰虛는 氣가 지나치게 上升하고, 원활히 下降하지 못하게 하여 鬱을 유발하고 濕, 痰 등을 겸하기도 하며 熱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孫一奎는 正氣의 虛, 實에 의해 氣鬱이 발생하고, 이로부터 化熱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正氣虛를 陰陽 속성에 따라 陰虛, 陽虛로 區分하고 이를 內相火로 통합하였다. 朱丹溪의 병기를 陰虛, 李東垣의

204) 朱丹溪 原著. 浙江省中醫藥研究院文獻研究室 編校.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218. “輕者可降 重者則從其性而升之”
 205) 朱丹溪 原著. 浙江省中醫藥研究院文獻研究室 編校.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218. “火急甚重者必緩之 以生甘草 兼瀉兼緩 參朮亦可”
 206) 朱丹溪 原著. 浙江省中醫藥研究院文獻研究室 編校.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218. “凡火盛者 不可驟用涼藥 必兼溫散”
 207) 朱丹溪 原著. 浙江省中醫藥研究院文獻研究室 編校.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218. “可發有二 風寒外來者可發 鬱者可發 火鬱當發看何經”
 208) 朱丹溪 原著. 浙江省中醫藥研究院文獻研究室 編校.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218. “人壯氣實 火盛顛狂者 可用正治 或硝黃冰水之類 人虛 火盛狂者 以生薑湯與之 若投冰水正治立死”
 209) 朱丹溪 原著. 浙江省中醫藥研究院文獻研究室 編校.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 218. “陰虛證本難治 用四物湯加炒黃柏 降火補陰”. “陰虛火動難治”

병기를 陽虛로 구분하고, 또 朱丹溪와 같은 부위의 다른 陰陽속성인 下元陽虛의 火熱病機를 啓發하여 內傷虛證 火熱病機를 더욱 정밀히 하였다. 朱丹溪는 眞陰의 보전을 위해 主靜, 修心, 養心 등으로 火를 動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 여겼다. 또 치우치지 않고, 담백한 음식의 섭취를 통해 일상 생활에서 陰氣를 기르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治法에 있어서도 滋陰養血을 중심으로 하되, 火의 속성과 痰, 濕 등의 病變에 따라 解鬱, 祛痰, 利濕 등의 치법을 병용하였다. 孫一奎는 下元陽虛의 火熱病機를 啓發하고, 溫補下元의 治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火熱病機의 치료에 있어서 正氣와 邪氣의 虛, 實 및 屬性의 파악을 통해 다스릴 것을 강조하였다.

3-3 小結

李東垣은 脾胃의 陽氣로부터 元氣가 자양되고 生命活動이 지속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 脾胃의 虛損을 중심으로 藏府에서 元氣가 行하지 못하여 火熱病機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이고, 甘溫으로 脾胃를 補益하며, 甘寒으로 瀉熱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朱丹溪는 肝腎의 陰虛를 강조하기 위해 相火가 下部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外物의 인식으로 君火가 먼저 동하면 下部에서 相火가 妄動하여 眞陰을 耗損하므로 陰虛火熱病機가 발생함을 보이고, 滋陰을 위주로 하는 治法을 제시하였다. 飲食, 藥物이 脾胃를 통해 陰氣를 보충해 줄 수는 있지만, 眞陰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므로, 收心養心을 통해 陰을 보존할 것을 강조하였다.

李東垣, 朱丹溪가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陽虛, 陰虛의 火熱病機를 강조한 것에 비해, 孫一奎는 李東垣, 朱丹溪가 충분히 밝히지 못한 下元陽虛의 병기를 啓發하고, 陽虛, 陰虛의 內傷火熱病機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陰陽의 消長盛衰에 의한 온전한 太極論적 의미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李東垣은 脾胃로부터 眞氣, 元氣가 자양됨을 강조하였다. 元氣가 順行하지 못하여 熱이 발생할 수 있으며, 脾胃虛損으로 인한 元氣不足을 火熱病의 주된 원인으로 보았다. 脾胃虛損으로 인한 血虛와 七情 등

으로 心鬱이 발생하면 心에서 火가 발생하며, 君火를 대신하여 相火인 心包가 熱을 받게 된다고 보았다. 또 暑의 濕熱과 中氣下陷으로 인해 下焦濕鬱이 발생하면 腎이 熱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즉 脾胃虛損을 중심으로 七情, 四時 등의 요인에 의한 臟腑虛實에 따른 '元氣不足 → 不行鬱 → 化熱'의 火熱病機를 제시하였다. 朱丹溪는 '이루기 어렵고, 모순되기 쉬운' 陰의 특성을 강조하며 眞陰의 보전을 중시하였다. 心이 君火에 해당하며, 心包, 三焦 뿐 아니라 肝, 膽, 腎, 膀胱 등도 相火에 해당하며 생리, 병리를 담당한다고 보았다. 특히 肝, 腎의 하부에 相火가 존재하여, 相火妄動에 의해 陰血을 모순시키는 병리를 강조하였다. 外物에 의해 君火가 먼저 일어나면, 相火가 妄動하여 陰虛를 일으키며, 陰虛는 氣가 지나치게 上升하고, 원활히 下降하지 못하게 하여 鬱을 유발하고 濕, 痰 등을 겸하기도 하며 熱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즉 '火動 → 陰虛 → 氣升不降 → 鬱 → 化熱'의 火熱病機를 제시하였다.

孫一奎는 命門을 非水, 非火라 하여 太極의 전체성을 강조하였고, 五藏의 五行배속을 지켜 火의 소재를 上部로 국한하였다. 心包, 三焦는 血, 氣를 주관하며 表裏를 이루어 君命을 全身에 代行하므로, 五藏의 모든 系統에 氣血의 변화에 의한 火熱의 病機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다. 正氣, 邪氣의 虛, 實로 유발된 氣의 鬱滯로 인해 火熱이 발생한다 하여 '虛, 實 → 鬱 → 化熱'의 火熱病機를 제시하였다. 특히 正氣虛의 기전에 대해 李東垣, 朱丹溪의 학설을 陽虛, 陰虛로 구분 內相火에 포함시키고, 下元陽虛의 火熱病機를 啓發하였다. 이는 李東垣의 脾胃陽虛와 같은 屬性이면서 다른 소재를, 朱丹溪의 肝腎陰虛와 같은 소재이면서 다른 속성을 인식한 것이다. 孫一奎는 이를 통해 火熱病機에 대한 統合的, 體系的 인식의 틀을 마련하였다. 치료에 있어 李東垣은 脾胃의 補益을, 丹溪는 주로 滋陰을 중시하고, 孫一奎는 火熱病에 대해서도 正氣의 虛實, 邪氣의 所在 및 屬性을 파악하여 다스릴 것을 강조하였으며, 下元陽虛에 대한 溫補下元의 治法을 啓發하였다.

III. 結 論

孫一奎는 萬物發生에 대한 宋明理學의 宇宙論에서 ‘無極·太極 → 動靜·陰陽 → 五行 → 化生萬物’의 圖式을 인체에 적용하여, 原氣, 動氣, 命門을 陰陽二氣의 변화가 일어나기 前의 단계로 보고, 五藏을 陰陽二氣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五行의 개념으로 인식하였다. 原氣를 無極으로 動氣를 太極으로 본다면 이는 선천적인 稟賦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命門은 ‘腎間動氣’라 하여, 인체로 국한되는 氣機로서의 특징을 가지는 氣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념에 의하여 命門은 五行의 火나 水로 배속할 수 없는 것이다. 五藏六腑를 五行으로 나누어 心은 君火에, 心包와 三焦는 相火에 각각 배속하여, 心包와 三焦는 君火의 수를 받아, 전신에 君수를 펼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心包와 三焦는 서로 表裏관계를 이루어 각각 血과 氣를 주관하는 것으로 보았고, 膻中, 氣海, 宗氣 또한 相火와 관련한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이로써 五藏의 五行 배속을 지키면서도, 五藏의 모든 계통에 氣血의 변화에 의한 火熱病機가 發生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가 마련되었다. 熱의 發生을 發病經路和 正氣의 虛實을 중심으로, 外的經路의 君火, 相火와 內的經路의 君火, 相火로 나누었다. 外的經路의 君火, 相火에 대해서는 邪氣의 屬性과 所在를 중심으로 살피되, 正氣의 虛實을 함께 인식하였다. 內的經路의 君火, 相火에 대해서는 正氣의 虛實을 중심으로 살피되, 邪氣의 所在와 屬性을 함께 인식하였다. 즉 ‘內·外, 君火·相火’의 의미는 火熱의 發生에 대해 正氣의 虛實과 邪氣의 所在, 屬性의 구분을 핵심으로 함으로서, 결국 外, 內 별개의 君火와 相火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되었다. 內相火를 陽虛, 陰虛로 구분함으로써 李東垣, 朱丹溪가 밝힌 內傷火熱病機를 정밀하게 하였다. 脾胃陽虛에 한정되었던 陽虛火熱病機에 대해서, 下元陽虛의 病機를 계발함으로써 內傷陽虛 火熱病機의 치료에 새로운 認識과 治法을 밝혔다. 또 朱丹溪의 肝腎陰虛 火熱病機와도 같은 부위의 서로 다른 陰陽屬性으로 病機를 설명할 수 있게 됨으로써, 下部의

陰虛뿐 아니라 陽虛의 火熱病機에까지 인식의 폭을 확대시키게 하였다.

李東垣, 朱丹溪가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陽虛, 陰虛의 火熱病機를 강조한 것에 비해, 孫一奎는 李東垣, 朱丹溪가 충분히 밝히지 못한 下元陽虛의 病機를 啓發하고, 陽虛, 陰虛의 內傷火熱病機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陰陽의 消長盛衰에 의한 온전한 太極論적 의미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東垣은 內傷虛證에 대해 脾胃虛損을 중심으로 ‘元氣不足 → 氣鬱 → 化熱’의 病機를 제시하였다. 丹溪는 相火가 下部의 腎에 존재한다고 하고, 上部의 君火가 먼저 動하면 肝腎의 相火가 따라서 동하여 陰精을 모손시킨다고 하여, 內傷虛證에 대해 ‘火動 → 陰虛 → 氣升不降 → 鬱 → 化熱’의 火熱病機를 제시하였다. 孫一奎는 五藏의 五行 배속을 지키는 입장에서, 相火는 心和 가까운 上部에 위치하지만, 虛나 鬱이 發生한 곳에 相火의 移動에 의해 火가 발생한다고 보고 ‘正氣虛, 邪氣實 → 鬱 → 化熱’의 火熱病機를 제시하였다. 火熱病의 치료에 대해 李東垣은 脾胃의 補益을 위주로, 病變의 양상과 부위에 따라 養血, 清熱 등의 治法을 함께 운용하였다. 丹溪는 주로 滋陰을 중심으로, 氣血의 虛損, 鬱, 濕熱, 痰 등의 病變에 따라 治法을 운용하며 특히 修心養心을 통한 眞陰의 보존을 강조하였다. 孫一奎는 火熱病에 대해서도 正氣의 虛實, 邪氣의 所在 및 屬性으로 治療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李東垣, 朱丹溪의 病機認識은 孫一奎의 內相火중 한 부분인 內傷 陽虛, 陰虛의 火熱病機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孫一奎는 이에 대해 下元陽虛의 病機와 溫補下元의 治法을 추가적으로 밝혀내었으며, 火熱病機에 대해 表裏, 虛實등의 구분을 통한 體系的, 統合的 認識의 틀을 제시하였다.

IV. 參考文獻

<原典 및 著書>

1. 洪元植 編.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

究院出版部, 1985.

2. 朴贊國 譯注, 黃帝內經素問注釋. 파주, 集文堂, 2005.
3.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서울, 醫聖堂, 1993.
4. 孫一奎 原著, 張印生 外 主編, 孫一奎 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5. 李東垣 原著, 丁光迪 外 編校, 東垣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0.
6. 朱丹溪 原著, 浙江省中醫藥研究院文獻研究室 編校,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7. 洪元植 編著,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7.
8. 陳大舜, 曾勇, 黃政德 譯음. 맹웅제, 박현국, 박경남, 김남일, 신영일, 김용진, 안상우, 김훈, 김홍균, 차용석 옮김. 各家學說. 서울, 대성의학사, 2001.
9. 張岱年, 김백희 옮김. 中國哲學大綱(上). 서울, 까치, 2000.
10. 陳來 지음, 안재호 옮김. 송명성리학. 서울, 예문서원, 2004.
11.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 34 赤水玄珠 醫旨緒餘. 서울, 大星文化社, 1995.
12.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 45 景岳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論文>

1. 崔溶佑, 宋明理學과 素問, 周易의 天人相應思想 研究. 서울, 慶熙大學校 大學院, 2000.
2. 金知煥, 朱丹溪의 『黃帝內經』素問 理解에 관한 考察. 서울, 慶熙大學校 大學院, 2006.
3. 姜顯昊, 孫一奎의 生涯와 學術思想에 관한 研究. 대전, 大田大學校 大學院, 2000.
4. 梁光烈, 朱丹溪의 陽有餘陰不足論에 관한 研究. 서울, 慶熙大學校 大學院, 2001.
5. 南茂吉, 黃帝內經이 東垣의 醫學思想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慶熙大學校 大學院, 2005.
6. 權赫春, 朱子의 本體論과 修養論에 관한 研究. 서울, 慶熙大學校 大學院, 1996.

<辭典>

1. 傳統醫學研究所 編纂,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成輔社, 2000.
2. 李家源, 安炳周 監修, 大漢韓辭典編纂室 編, 教學大漢韓辭典. 서울, 教學社, 2002.
3. 東亞出版社 漢韓大辭典 編纂部, 東亞漢韓大辭典. 서울, 두산동아, 1998.